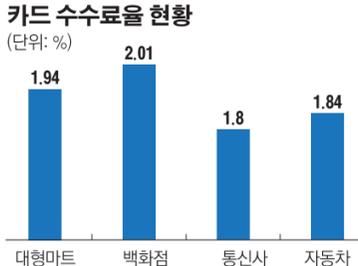




코스피 (19일)	2177.62 (-1.87P)	코스닥	748.91 (-4.22P)
환율(달러당 원화)	1130.60 (-1.50원)	금리(국고채 3년물)	1.810% (-0.002%p)

카드사·대형 가맹점 수수료 갈등 확산 칼배든 정부 시장개입 논란

금융위 “위법 발견엔 엄중조치”
“현대차 수수료율 문제없었다”
금융당국 책임론·압박설 일축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간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 사실상 개입을 선언했다. ▶관련기사 3면

금융위원회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어 수수료 협상 과정을 감독해 대형가맹점이나 카드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금융위는 양측 협상 과정에서 가맹점 계약 해지 등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므로 위법사항을 발견하면 최대 형사처벌까지 진행하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브리핑에서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협상 불발로 카드결제 거부 등 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금융위는 양측의 협상을 위해 카드

사는 대형가맹점에 수수료율 조정 사유를 충분히 설명토록 할 예정이다. 또 대형가맹점에는 수익자 부담 원칙 강화 등 수수료 개편안 취지와 여신전문금융업법 규정을 알려 수수료 인상을 유도한다.

금융위의 이날 브리핑은 앞서 현대자동차와 카드사 수수료율 협상 과정에서 불거진 ‘금융당국’ 책임론을 해명하는 성격이 짙었다. 다만 ‘현대차 수수료율에 문제가 있었냐’는 질문에 윤 국장은 “그렇지 않다”며 “카드사별로 현대차에 어떤 비용 발생 요인을 반영해 얼마의 수수료율이 나왔는지 개별적으로 살피지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실제로 설명 자료는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의 정당성 설명에 초점이 맞춰졌다. 카드노조가 언급한 ‘금융위 수수료 협상 조기 타결 압박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윤 국장은 “금융당국은 협상 완료 후 대형가맹점에 대한 카드수수료 적용 실태를 점검하고 위법사항은 법으로 조치할 것”이라며 “(협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한 여건 조성 노력을 기울였지만, 카드사에 조기 타결을 종용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금융위가 이날 엄중 조치를 예고한 만큼 앞으로 카드사는 유통, 통신, 항공업계 수수료 협상 과정에서 협상력을 발휘할 수 있을 전망이다. 특히 이들 업계는 자동차 판매사와 달리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집중적으로 누려왔다.

금융당국 역시 대형가맹점 수수료율 인상 근거로 일반가맹점과의 수수료율 불공정성과 역진성 완화, 마케팅 비용 수익자 부담 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이런 점도 카드사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 관측이 나온다. 정용욱 기자 dragon@

유통업계 아민정음 마케팅 사례

기업	아민정음	스피커 → 스피귀
위메프	위메프	커피머신 → 귀머머신
신세계	쓱	치킨 → 치권

팔도 네넴면
팔도비빔면 출시 35주년을 맞아 내놓은 한정판

‘스피귀·귀머머신·크크다스’를 아시나요 ‘아민정음’에 빠진 유통가

〈한글 자모를 모양 비슷한 것으로 바꿔 표현〉

팔도비빔면 ‘팔도네넴면’ 선보여
위메프는 ‘위메프’ 이벤트
‘언어유희’로 한글파괴 비판도

유통업계가 ‘아민정음’ 마케팅에 빠졌다.

아민정음이란 한글 자모와 모양을 모양이 비슷한 것으로 대체 표기해 멀리서 봤을 때 같은 단어로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일종의 글자 바꾸기 놀이다. ‘멍멍이’를 ‘맹맹이’로 표기하는 것이 대표적이다. 1020세대 사이에서는 새로운 아민정음을 공유하는 등 자신들만의 문화를 표현하는 수단으로 자리 잡았지만 일각에서는 ‘한글 파괴’라는 지적도 끊이지 않는다.

밀레니얼 세대로 불리는 1020세대가 소비 시장의 큰손으로 부상하면서 아민정음을 마케팅에 활용하는 기업도 갈수록 늘고 있다.

팔도는 계절면인 팔도비빔면을 아민정음으로 표기한 ‘팔도네넴면’을 지난달 선보였다. 팔도네넴면은 팔도비빔면 출시 35주년을 맞아 내놓은 한정판으로 온라인 판매 첫날부터 매진 행렬을 이어갔다. 팔도네넴면에 대한 소비자의 호응이 이어지자 팔도는 최근 편의점을 비롯한 대형마트, SSM(대형 슈퍼마켓) 등 오프라인으로 판매망을 확대했다.

위메프는 13일 팔도보다 몇 배 강력한 아민정음 마케팅을 펼쳤다. 위메프를 ‘위메프’로 표기한 것을 비롯해 이벤트명과 할인 상품의 명칭 상당수를 아민정음으로 표기한 것. 위메프는 행사를 통해 “스피귀(스피커), ‘귀머머신(커피머신), ‘치권(치킨)을 비롯해 ‘공기청정기 1’(공기청정기)를 판매한다”고 표기했다.

가장 성공한 아민정음 마케팅으로는 신세계의 ‘쓱’이 꼽힌다. ‘SSG.COM’은 ‘에스에스지닷컴’으로 읽어야 하지만 신세계 측이 ‘쓱’으로 명명하고 광고를 통해 적극 홍보하면서 ‘쓱닷컴’이 일반화됐다.

네트즌 사이에 등장하는 아민정음에서 추가 마케팅 가능성도 엿볼 수 있다. 팝콘을 ‘팝콘’으로, 팔죽을 ‘팔죽’으로 표기하는 식이다. 식혜는 ‘식혜’로 표기하는데 식혜의 대표 브랜드인 비락식혜가 팔도 제품을 인 것을 감안할 때 제2의 팔도네넴면도 나올 만하다. 소비자들이 브랜드명을 아민정음으로 바꾼 경우는 매일유업 분유 ‘멍작(멍작)’을 비롯해 ‘빅다이(빅파이)’, ‘크크다스(쿠크다스)’ 등이 있다.

아직은 아민정음 마케팅이 초기 수준이지만 기대와 우려가 교차한다. 기대를 표하는 쪽은 편(fun) 마케팅의 진화로 평가하는 데 비해 우려하는 쪽은 기업이 ‘언어유희’를 포장해 한글 파괴를 조장한다고 비판한다. 유현희 기자 yhh1209@



의원님들 다 어디 갔나 국회가 국정부질문을 시작한 19일 본회의장이 자리를 비운 의원들로 한산하다. ▶관련기사 5면 연합뉴스

〈인도판 우버〉

현대·기아차 ‘올라’에 3억 달러 투자

차량호출업체...다각적 협력 추진
단일 기업 투자규모로 역대 최대



정의선(오른쪽)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과 바비시 아가르왈 올라 CEO가 양사의 협력 방안을 협의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진제공 현대차

현대자동차와 기아자동차가 인도 차량 호출업체 올라(ola)에 3억 달러(약 3400억 원)를 투자한다.

19일 현대기아차는 “인도 올라와 ‘투자 및 전략적 사업 협력’에 대한 계약을 체결하고 인도 모빌리티 시장에서 상호 다각적 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3억 달러 가운데 현대차가 2억4000만 달러(약 2707억 원), 기아차는 6000만 달러(약 677억 원)를 투자하기로 했다. 이번 투자는 작년 동남아 최대 모빌리티 기업 ‘그랩’에 투자한 2억7500만 달러를 넘어선, 단일 기업을 상대로 한 투자 규모 가운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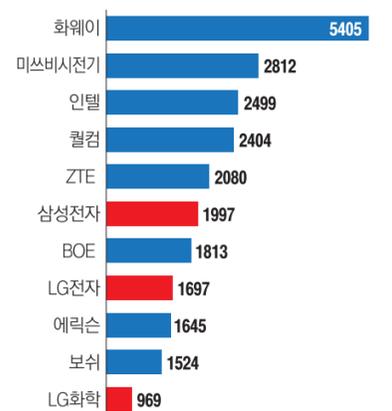
적 호출은 10억 건이 넘는다. 현대차와 기아차, 올라 등 3사는 시장 요구를 반영한 모빌리티에 특화된 신차를 개발해 공급할 계획이다. 차량 관리와 정비를 포함한 ‘통합 솔루션’도 제공하기로 했다.

앞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총괄수석부회장은 지난달 말 서울 현대차 본사에서 올라의 바비시 아가르왈 최고경영자(CEO)와 구체적 협력 방안과 미래 모빌리티 시장 변화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정 총괄수석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인도는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시장으로 인도 모빌리티 1위 업체인 올라와 협력해 우리가 목표로 하는 ‘스마트 모빌리티 솔루션 제공업체’로의 전환 노력에 한층 속도를 낼 것”이라고 말했다. 김준형 기자 junior@

국제 특허출원 삼성 6위·LG 8위

작년 한국기업 1만7014건 세계 5위

기업별 특허 출원 순위 (단위: 건, 2018년 기준)



우리나라가 특허 국제 출원 건수에서 2년 연속 5위를 차지했다.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가 19일(현지시간) 발표한 ‘특허협력조약(PCT) 연례 보고서 2018’에 따르면 2018년 전 세계 총 특허 출원 건수는 전년 대비 3.9% 늘어난 25만3000건으로 9년 연속 증가해 사상 최대치를 경신했다.

WIPO는 “인공지능(AI)과 자율주행차 등 신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각국의 기업과 연구자들이 지식재산권 확보에 적극 나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지난해 특허 출원 건수가 가장 많은 나라는 미국이었다. 미국은 지난해 총 5만6142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중국이 5만3345건으로 2위를 차지했다. 3위에 오른 일본은 4만9702건, 4위 독일은 1만9883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우리나라는 1만7014건의 특허를 출원해 5위에 이름을 올렸다.

기업별로는 중국 최대 통신장비업체 화

웨이테크놀로지사가 가장 많은 특허를 출원했다. 화웨이는 작년에만 5405건의 특허를 출원했다. 그중 약 30%가 차세대 이동통신 5G와 관련된 것이었다. 삼성전자는 총 1997건의 특허를 출원하며 6위를 기록했고, 1813건을 출원한 중국 디스플레이업체 BOE가 7위, LG전자는 1697건으로 8위에 올랐다. 강현수 기자 hyeonsu95@

“매년 수천억 예보료 부담...목표기금 합리화 필요”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 기자간담회

지난해 7721억 5년 새 2배 ↑ ...기금 적립 규모 ‘세계 최대’ “뱅크런 가능성 낮는데 규제 과도...제도 전면 재검토해야”

“극심한 영업난과 새 회계기준(IFRS17) 도입을 앞두고 매년 수천억 원에 달하는 예금보험료는 보험사에 큰 부담입니다. 예보료 부과기준과 목표기금 합리화를 정책 당국에 적극 건의하겠습니다.”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은 19일 서울 광화문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생보협회는 올해 △예금보험제도 개선 △특수종사자 보호 입법 대응 △헬스케어 서비스 활성화 지원 △새 회계기준(IFRS 17)과 키스(K-ICS) 연착륙 지원 △보험 약관 개선 △실손의료보험금 청구 간소화 등 6개 중점 과제를 선정했다.

집중하는 부분은 예보제도 재검토다. 요율 인하를 넘어 제도를 전면 재검토해 달라는 것이다. 협회에 따르면 2013년 3986억 원이던 생보업계 예보료는 지난해 7721억 원으로 93% 불어났다. 이대로라면 2022년 1조 원대까지 급증할 것으로 추정된다.

주제 발표를 맡은 천승환 기획부장은 “보험은 금융당국이 건전성 규제를 통해 지급 불능 사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때문에 뱅크런(예금 대량 인출)이 발생할 가능성이 작다”며 “이런 특수성 때문에 OECD 34개국 가운데 생보업에 예보제도를 도입한 나라는 9개국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최소 10년 이상 만기까지 누적 적립되는 책임준비금에 사실상 예보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수입보험료까지 더하면 중복으로 내는 셈”이라고 지적했다. 국제 흐름에 맞지 않는 과도한 규제란 설명이다.

아울러 “2012년 3조4000억 원이던 예보료 목표 규모가 2017년 5조3000억 원으로 늘었다”며 “세계 최대 규모의 기금 적립에도 불구하고 연평균 목표 규모가 9.4%씩 늘고 있어 부담이 크다”고 토로했다.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보험설계사 등 특수고용직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에 대해선 우려를 표했다. 박순근 전략지원 부장은 “설계사 일자리가 감소하고 보험료가 인상되는 등 산업 전반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합리적인 방안이 도출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생보협회는 시장 포화로 미래 먹거리가

절실한 상황에서 헬스케어서비스 활성화에 적극 나설 방침이다. 2014년 3조 원에 머물던 스마트 헬스케어 시장은 2020년 14조 원까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 부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맞춰 건강증진 서비스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지만 의료와 비의료 행위 구분이 명확하지 않아 서비스 설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금융당국에 가이드라인을 명확히 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할 것”이라고 했다.

“암호문에 버금간다”는 비판을 받아 온 보험 약관에 대해서는 태스크포스(TF)를 꾸려 알기 쉽게 고쳐 나가겠다고 약속했다. 김인호 리스크관리부장은 “소비자 중심의 약관제도 정착을 위해 감독당국의 제도 개선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6월 홈페이지에 ‘어려운 보험용어 신고 센터(가칭)’을 개설해 소비자 의견을 들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선현 기자 sunhyun@

신용길 생명보험협회장이 19일 오전 서울 광화문에서 '2019 생명보험협회 기자간담회'를 열고 올해 경영계획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다. 뉴스시

“루니버스 플랫폼 출시 발판

(컨소시엄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박재현 ‘람다256’ 대표, ‘두나무’서 독립법인 분사 선언 사용성 고도화·체인환경·보안 강화 등 10대 문제점 개선



‘블록체인계 아마존’ 도약

박 대표는 ‘BaaS 2.0’인 루니버스를 기반으로 구축한 실사례들은 4월부터 7 개사를 시작으로 공개할 예정이다. 초기 론칭 서비스는 △E4넷의 블록체인 기부 플랫폼 체리 △가상 자산을 활용한 블록체인 게임 플랫폼 모스랜드 △한류 소셜 커뮤니티 플랫폼 케이스타라이브 △블록체인 기반 난지 환자 커뮤니티 휴먼스케이프 △암호화폐 보상형 Q&A 서비스 아하 △글로벌 언어 공유 플랫폼 직톡 △드라마, 영화, 웹소설 등을 창작, 협업, 유통하는 스토리체인 등이다.

람다256은 루니버스를 활용한 프로그램 및 서비스를 쉽게 배포하고, 블록체인 생태계가 활성화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 루니버스 토큰 ‘루크(LUK)’를 신규 발행한다. 루크는 루니버스의 메

인체인 가스비 및 BaaS 서비스 사용료로, 향후 DApp 스토어와 솔루션 마켓플레이스에서 플랫폼 결제 수단, 더 나아가 업계 발전을 위한 투자 지원금으로서의 중요한 임무를 담당할 예정이다.

발행되는 루크 중 약 30억 루크를 블록체인 생태계 조성을 위한 루니버스 지원 프로그램으로 사용할 예정이며, 투자 회수금은 다시 재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박 대표는 “루니버스의 투자는 2대 방향(기술, 생활밀착형서비스), 5대 기술 분야(레이든 기술, 공유원장, 오라클라이즈, IPFS 기술, 프라이버시), 6대 생활밀착형산업(소셜 네트워크, 게임 및 엔터테인먼트, 커머스, 여행, 물류, 금융)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3년 뒤인 2022년에는 블록체인계의 아마존이 되겠다.”

박재현(사진) 두나무 블록체인 연구소 람다256 대표가 19일 “루니버스 출시가 블록체인 개발사들에 활력을 불어넣는 것은 물론, 블록체인 혁신을 이어나갈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박 대표는 세계 최초로 컨소시엄 기반 블록체인 서비스 플랫폼 ‘루니버스’ 정식 출시를 알렸다. 그는 루니버스가 블록체인 업계에서 해결 과제로 지적돼 온 △체인환경 개선 △사용성 고도화

△보안 강화 △비용 절감 10대 문제점을 해결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람다256은 별도 독립법인으로 분사를 선언했다. 루니버스 플랫폼의 저변 확대 및 사업 활성화를 위해 두나무 소속 연구소에서 별도 법인으로 분사를 결정했다. 블록체인 플랫폼 전문 기업으로서 역량을 집중하겠다는 전략이다. 박재현 전 람다256 연구소장이 대표직을 맡게 된 것이다.

박 대표는 “루니버스가 체인환경 개선에서는 성능 강화, 안정성, 편리한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며 “사용성 고도화에서

는 편리한 유저 계정관리, 실시간 서비스 제공을 위한 자동 사인 대행, 유저정보 백업 및 관리 지원한다”고 설명했다. 보안은 스마트 컨트랙트 안정성, 데이터 프라이버시 준수가 가능하게 했으며, 비용 절감에서는 부담 없는 가스비, 사용량에 따른 효율적인 자동 증설을 실현했다.

람다256은 지난해 5월부터 루니버스를 만들어 왔다. 그 결과 9월에는 기존 설치형 블록체인 소프트웨어 및 ‘서비스형 블록체인 플랫폼(BaaS·Blockchain as a Service)1.0’의 한계에서 벗어난 ‘BaaS 2.0’의 방향성을 선보인 바 있다.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모든 사업체는 사업주 및 근로자를 대상으로 연 1회, 1시간 이상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

근거법령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5조의2, 법 시행령 제86조(과태료)

※ 단,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사업체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 실시 가능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모두가 행복한 직장 생활의 시작입니다



www.kead.or.kr 문의: 1588-1519

가맹점 '갑질' 해도 벌금 1000만원... 처벌 사례 없어

정부 중재안 실효성 있다

지난달 “개입 어렵다”던 금융위 “형사고발 염두” 초강수 발인
대형가맹점 위협 엄벌한다지만
현행법상 ‘압박카드’ 많지 않아

금융당국이 카드사와 수수료율 협상 중 인 대형가맹점에 칼을 겨눴다. 최근 종료된 현대자동차와 수수료 협상 결과에 대해선 판단을 유보했다. 다만 전반적인 수수료 협상 결과 점검 시기는 가급적 앞당기겠다는 입장이다. 금융당국이 이처럼 경고 메시지를 낸 것은 올해 실제 점검이 어느 때보다 고강도가 될 것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하지만 대형가맹점이 받을 수 있는 처벌 수위는 현행법상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이 전부다. 이마저도 과거 카드사와 대형가맹점 수수료 분쟁 당시 적용된 사례가 없어서 실제로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을 압박할 수 있느냐는 의문이 뒤따른다.

금융위원회는 19일 대형가맹점 카드 수수료를 협상 관련 브리핑에서 대형가맹점의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카드사가 대형가맹점과 협상에서 불리한 상황이 계속되자 금융당국이 대형가맹점에 견제구를 던진 셈이다.

금융위는 대형가맹점이 거래상 우월적



카드사-대형가맹점 수수료 개편 현황 (단위: %)



금융위 추산 카드사 마케팅비용 지출 현황 (단위: 억 원, 2017년 기준)



지위를 이용한 금지행위를 하면 '징역 1년 또는 벌금 1000만 원' 처벌이 가능하다고 했다. 윤창호 금융산업국장은 질의응답에서 “이는 형사 고발 사항인데 형사 고발도 염두에 둘 것이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말했다. 이는 지난달 관련 브리핑에서 “개입은 어렵다”며 한발 물러선 입장에서 180도 바뀐 모습이다.

문제는 해당 규정인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의 실제 처벌 사례가 전혀 없다는 점이다. 2014년 현대차는 카드사에 할부 금융 수수료를 인하를 요구하며 계약 해지를 무기로 카드사를 압박했다.

당시 카드사는 여신법을 근거로 협상을 벌였지만 실패했고, 현대차는 처벌받지 않았다. 또 처벌 규정도 ‘최대 벌금 1000만 원’으로 설정돼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한 카드업계 관계자는 “(해당 규정으로) 처벌받은 사례가 없는 것이 사실”이라

며 “다만 이번에 금융당국이 해당 법을 실제로 적용하겠다는 의사를 분명히 밝혔기 때문에 이전과는 다를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국장은 “(최대 벌금) 1000만 원이 적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필요하면 법 개정을 통해 상향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며 “다른 법에선 인허가나 여러 자격 요건을 정하는 법률사항이 많은데 벌금은 자격요건의 결격사유로 작용한다”고 말해 연계 처벌도 가능성을 시사했다.

또 윤 국장은 대형가맹점의 행정소송 가능성에 “앞으로 실태점검 등을 통해 법 위반 소지가 있으면 적절한 조치를 할 것”이라며 “(대형가맹점도) 법적 소송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으므로 이는 대응하고 필요하면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법 조항에 명시된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의 요구’의 구체적인 해석도 내놨다. 윤 국장은 “(낮은 수수료율을) 요구하는 것도 법상으로 포함된다”고 말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18조3항에는 대형

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가맹점 수수료율을 정할 것을 요구하는 행위’를 해선 안 된다고 명시했다. 그간 이 법 조항의 적용 범위를 놓고도 해석이 분분했다.

한편 카드노조는 21일 금융위 앞에서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처벌 규정 강화 철야 농성을 진행할 예정이다. 카드노조 관계자는 “금융위가 대형가맹점 처벌을 언급한 만큼 관련 사항을 포함한 모든 요구 사항을 전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용욱 기자 dragon@

소상공인 살리자고 대형 가맹점 목 조르나...

유통가 “정부, 시장개입 과도”

불황심화...수수료 인상 감당 못해

유통업계는 금융위원회의 카드 수수료 집중 점검 강화 움직임에 불편한 기색이 역력하다. 유통업계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들의 불만을 잠재우기 위해 카드사와 유통사가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던 수수료율 협상에 정부가 개입했다고 입을 모은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은 3년마다 카드사와 수수료율을 협상하고 재계약을 진행한다. 2016년 수수료가 동결된 후 올해 또 협상 시기가 도래하자 카드 업체는 현행 1.8~1.9%대인 수수료율을 2.1%대로 올리겠다고 통보한 상태다. 하지만 협상이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자 금융당국이 “추후 카드 수수료 적용 실태 점검 등을 통해 위법사항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엄포를 냈다.

A 백화점 관계자는 “신용카드 거래는 매출의 대부분을 차지한다”면서 “연 매출을 5조 원으로 가정할 때 카드사의 요구대로 수수료를 0.2%포인트만 인상해도 100억 원가량이 영업이익에서 더 빠지게 된다”며 금융위 발표에 불만 소리를 냈다.

B 백화점은 관계자는 “업체끼리 시장 논리에 의해 자율적으로 협의해야 하는 수수료 협상에 정부가 너무 과도하게 개입하고 있다”며 “소상공인을 배려한다면 시장에는 대형 유통사를 털어가는 꼴도 그렇지 않아도 어려운 업황에 더 큰 실적 악화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실업이 이슈가 되면 고용을 늘리면서까지 정부 정책을 잘 따르고 있는데, 카드 수수료 인상 요구는 너무하다”고 반박했다.

대형마트 업계는 한국제인스토어 협회

차원에서 대응하기로 했다. 체인스토어협회는 국내 최대 유통산업 단체로 이마트와 롯데마트, 홈플러스 등 대형마트와 롯데슈퍼, 이랜드리테일, CJ올리브영 등 대기업 유통사 대부분이 회원으로 가입돼 있다.

협회는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수수료 인상안을 수용하기 어렵다”며 “(신용카드사) 수수료 산정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수수료 인상에 대해 근거 제시 없이 일방적으로 인상을 통보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쟁환경의 변화 및 경쟁 심화에 따라 가맹점들의 매출 및 이익이 급감하고 있어 많은 경비를 줄이는 자구노력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수백억 원에 달하는 수수료 인상을 감당할 수 있는 여력이 없다”며 오히려 “신용카드사들은 경제성장, 물가상승에 따른 수익 및 이익 증대, 가맹점에 비해 월등히 높은 이익구조, 조달금리 감소, 연체채권 비용절감 등 수수료 인하 요인이 충분하다”고 반박했다.

유통업계의 반발이 예상보다 거세 협상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은 카드 결제 의존도가 높아 이들 가맹점이 현대차처럼 계약 해지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 대형마트 관계자는 “양측의 입장 차가 첨예해 수수료 협상은 6개월 이상이 걸릴 것”이라며 장기화를 우려했다.

유통업계는 카드사의 요구를 수용할 경우 향후 할인행사나 무이자 할부, 포인트 추가 적립 등 소비자 혜택 축소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이미 신용카드사들은 이달 1일부터 인상된 수수료율을 유통업계에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카드사와 유통업체 간 협상이 최종 마무리되면 수수료율 차액을 정산해 유통업체에 돌려주게 된다.

남주현 기자 joo@

나에게 맞는 종신보험 한번에 체크하자!

고령자, 유병력자도 가입 가능한

삼성생명

간편가입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지환급형]

저렴한 보험료로 긴 생애 쓸모 많은

삼성생명

생애설계종신보험

[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지환급형]

* 「저해지환급형」 상품은 해지율을 적용하는 상품으로, 보험료 납입기간 중 계약이 해지될 경우 해지환급금이 「해지율을 적용하지 않는 동일한 보장내용의 일반종신보험」보다 적은 대신 저렴한 보험료로 가입할 수 있는 보험상품입니다. * 「삼성생명 간편가입종신보험(무배당,보증비용부과형)(저해지환급형)」은 일반심사보험에 가입하기 어려운 유병력자(고령연자 포함, 가입나이는 상품설명서 참고)를 대상으로 하므로 일반심사보험보다 보험료(특약 포함)가 비쌉니다. 유병력자가 아니신 경우, 동일한 상품구조의 이 보험보다 저렴한 일반심사보험 「삼성생명 생애설계종신보험(무배당, 보증비용부과형)(저해지환급형)」에 가입하셔야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간편심사보험은 유병자의 보험 가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일반심사보험에 비해 일부 완화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완벽한 계약전 알릴 의무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거나 사실과 다르게 알린 경우 가입이 거절될 수 있고, 가입되더라도 해지 될 수 있습니다.(이 경우 해지환급금 지급) * 보험계약 체결 전에 해당 상품의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자세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 보험계약자가 기존에 체결했던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다른 보험계약을 체결하면, 보험인수가 거절되거나 보험료인상 및 보장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이 보험계약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되, 보호한도는 본 보험회사에 있는 고객님의 모든 예금보호 대상 금융상품의 해지환급금(또는 만기시 보험금이나 사고보험금에 기타지급금을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원」이며,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피보험자의 건강상태나 직업(위험직종) 등에 따라 가입이 거절되거나 제한될 수 있으며, 고의적 사고 및 2년 이내 자살시에는 사망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습니다.

생명보험협회심의회 제2019-00680(2019.03.12)
삼성생명 SAMSUNG

전셋값 10% 하락 땀 3.2만가구 '강통 전세' 우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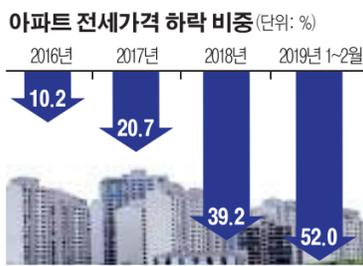
한은 보고서... "금융자산 처분·대출해도 보증금 반환 어려워"
2년 전보다 전셋값 하락 비중 서울 28%·수도권 46%·지방 60%
후속 세입자 못 구해 보증금 모두 빼줄 경우 32만가구가 늘어

최근 전셋값 하락세가 가팔라지는 가운데 현 수준에서 10% 정도가 더 떨어지면 최소 3만2000가구가 전세보증금을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는 분석 결과가 나왔다.

19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관련 영향 점검' 자료에 따르면 전셋값이 올 1~2월 대비 10% 더 떨어지면 3만2000가구는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으로부터 빌리는 방법을 통해서도 보증금을 반환하기 어려울 것으로 봤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해 전세보증금을 모두 빼줘야 할 경우를 가정하면 32만 가구가 이에 해당할 것으로 추산했다.

이는 211만 가구가 추산되는 전체 임대가구의 각각 1.5%와 14.8%에 해당한다. 반면 92.9%의 가구는 금융자산 처분만으로, 5.6%의 가구는 금융기관 차입 등을 통



해 보증금 반환이 가능할 것으로 봤다. 한국감정원에 따르면 전셋값 하락세는 지난해 말 이후 지방에 이어 서울 등 수도권으로 확산 중이다. 올 2월 지방 전세 가격은 2년 전인 2017년 3월 대비 2.6% 하락했고, 수도권도 2017년 11월에 비해

2.1% 내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들어 거래된 아파트 중 전세 가격이 2년 전보다 하락한 비중이 절반이 넘는 52%에 달했다. 서울은 28.1%에 그쳤지만, 수도권은 46.5%, 지방은 60.3%였다. 이는 입주 물량 확대와 일부 지방의 경기 부진, 최근 상승에 따른 조정압력 등이 작용한 때문이라는 게 한은 측 설명이다. 2012년 말 163만1000명이던 다주택자가 2017년 말 211만9000명으로, 같은 기간 5만4000명이던 등록 임대사업자가 24만9000명으로 증가한 것도 전세주택 공급 확대 요인으로 꼽혔다. 변성식 한은 안전총괄팀장은 "향후 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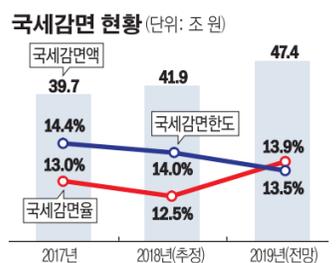
가격이 추가 조정되더라도 임대가구의 대부분은 보유 금융자산을 처분하거나 금융기관 차입을 통해 전셋값 하락에 대응이 가능하다"면서도 "부채 레버리지가 높은 일부 다주택자 등의 경우 보증금 반환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보증금 반환이 어려운 3만2000가구 중 상당부분(71.5%)은 부족자금이 2000만 원 이하다. 사인(개인) 간 거래로도 지급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32만 가구가 될 것이라는 전망도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할 경우라면 맞는 말"이라고 덧붙였다. 김민현 자본금융 전문기자 kimnh21c@



떠나는 장관들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 전 차담회에서 장관직에서 물러날 예정인 국무위원들과 얘기하고 있다. (왼쪽부터) 도종환 문체부 장관, 김영춘 해수부 장관, 김부겸 행안부 장관, 김현미 국토부 장관, 유영민 과기정통부 장관, 문 대통령. 연합뉴스

올 국세 감면액 47.4조 예상

조세지출 기본계획 수립
근로장려금 15.3조→20조
감면을 법정한도 초과할 듯
외국투자 법인세 감면 폐지



지자체 조세특례제한법상 비과세·감면에 따른 국세 감면액이 41조9000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올해엔 근로장려금(EITC) 등 확대 조세지출이 5조 원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기획재정부는 19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조세지출 현황을 보면, 지난해 국세 감면액은 41조9000억 원으로 추정됐다. 국세 감면액과 수입총액(293조6000억 원)의 합계 대비 감면액 비율(감면율)은 12.5%로, 감면 한도인 14.0%를 밑돌았다. 감면액 중 29조1000억 원은 개인에, 12조4000억 원은 기업에 귀속됐다. 올해엔 감면액이 47조4000억 원으로 올해보다 5조5000억 원 증가할 전망이다. 감면율도 13.9%로, 1.4%포인트(P)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 이는 올해 감면 한도(13.5%)를 상회하는 수준이다. 감면은 주로 저소득층과 중소기업에 집중된다. 근로장려금을 포함한 근로자 지원은 지난해 15조3000억 원에

서 올해 20조 원으로, 농림어업 지원은 5조4000억 원에서 5조7000억 원으로, 중소기업 지원은 2조7000억 원에서 3조1000억 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재정분권 기초에 따라 부가가치세 중 3조3000억 원은 지방소비세로 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재부는 "비과세·감면제도를 지속 정비하되, 저소득층 지원 및 경제활력 제고를 위한 조세지출 기능은 강화했다"고 평가했다. 외국인투자 법인세 감면제도를 폐지하고, 근로자복지증진시설 투자세액공제율을 인하한 것을 사례로 들었다. 올해 조세지출 운영 방향에 대해선 "일자리·혁신성장을 중심으로 조세지출을 운영하되, 감면 한도를 준수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성과 평가·관리에 있어선 "예비타당성평가 및 심층평가를 차질없이 시행해 평가 결과를 세법 개정안에 반영하고, 이들 평가의 질적 제고를 위한 기관 간 협력 강화 및 부처 자율평가의 내실화를 추진하겠다"고 했다. 세종=김지영 기자 jye@

새만금 매립 1년 단축... 국내 기업도 임대료 감면

절차 간소화 등 민간투자 유도
국제협력용지 매립 내년 착공

새만금 매립이 애초보다 1년 앞당겨진다. 국내 기업의 새만금 투자 혜택도 확대된다.

국토교통부는 속도감 있는 새만금사업 추진과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매립사업 절차 간소화, 투자기업 임대료 감면 확대 등을 담은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특별법) 개정안이 내달 1일 시행된다고 19일 밝혔다. 이에 앞서 세부사항을 규정한 새만금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주요 내용을 보면 효율적이고 신속한 매립사업 추진을 위해 기존 용도별 개발계획과 실시계획을 통합해 단일계획(통합계

획)으로 수립하도록 했다. 또 통합계획에 포함된 도시관리계획, 교통영향평가 등 별도로 심의하고 있는 사항을 새만금개발통합심의위원회에서 일괄 심의한다. 정부는 연내 통합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현재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국제협력용지 선도매립사업 통합계획 수립도 하반기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새만금 국제협력용지 선도 매립사업의 사업 착공 시기가 최대 1년 정도 단축될 전망이다. 내년 착공이 가능해진 것이다. 또 그간 외국인투자기업에만 적용되던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분 감면 혜택이 국내 기업에도 적용된다. 국내 기업도 외국인투자기업과 동일한 국·공유재산 사용료 대부분 감면을 적용해 기존 토지가액의 5%에서 1%로 확대된 감면 혜택을 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저렴한 임대료

혜택으로 최대 100년 장기임대에 입주할 수 있어 기업경쟁력도 부담이 크게 완화될 전망이다. 예를 들어 산단 입주 국내 기업 A사(약 2만㎡)의 50년간 임대료가 법 시행 전에는 67억 원이었지만 법 시행 후 14억 원으로 53억 원이 감면된다. 이 규정은 신규 입주 기업뿐 아니라 종전에 새만금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에도 적용된다. 당사자 간 직접 지급 가능한 외국환 경상거래 신고 기준금액도 현행 1만 달러(USD)에서 2만 달러로 경제자유구역과 동일하게 조정했다. 아울러 일반산업단지인 새만금 산업단지를 올 하반기 국가산업단지로 전환해 향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의 투자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세종=곽도훈 기자 soqood@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 중앙아시아 수출

한국형 스마트팜 패키지가 중앙아시아에 수출된다.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나레트랜드, 제이엠농자재 등 한국 컨소시엄이 구축한 스마트팜 패키지를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에 수출하기로 했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팜 패키지는 스마트팜 플랫폼과 온실·양액 설비 등 농기자재, 종자 등을 한데 묶은 수출 상품이다. 한국산 종자 등도 수출할 수 있어 스마트팜 플랫폼만 수출했을 때보다 종자 로열티 등 더 많은 부가가치를 얻을 수 있다. 이번에 수출한 딸기와 오이 스마트팜 패키지의 경제적 규모는 420만 달러에 이른다. 한국 컨소시엄은 다음 달 카자흐스탄

에서 1300만 달러 규모의 딸기 스마트팜을 수주하는 것이 확실시된다. 농장 자동화에 초점을 둔 1세대 스마트팜과 달리 2세대 스마트팜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등 신기술을 활용한 생육 관리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실용화재단은 이번 수출을 극동 러시아 등 다른 신흥농업 시장에 진출하는 발판으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내년엔 러시아에 테스트베드를 한 곳 더 설치하기로 했다. 네덜란드 등 선진국보다 한국이 현지 스마트팜 시장 진출은 늦었지만 가격 대비 성능은 앞선다는 게 실용화재단의 설명이다. 세종=박종화 기자 pbell@

내달 발전용 LNG 세금 인하

내달 1일부터 발전용 연료인 액화천연가스(LNG)에 대한 제세부담금(개별소비세+수입부과금+관세)이 kg당 91.4원에서 23원으로 대폭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발전용 LNG에 대한 수입부과금을 인하하는 내용의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19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4월 1일부터 발전용 LNG 수입부과금이 현행 kg당 24.2원에서 3.8원으로 인하된다. 이와 함께 같은 날 발전용 LNG의 개별소비세를 현행 kg당 60원에서 12원으로 내리는 내용의 '세법 개정안'도 시행된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공정위, LG그룹 '일감몰아주기' 현장 조사

판토스 부당지원 겨냥한 듯

공정거래위원회가 LG그룹의 일감몰아주기 혐의에 대해 현장조사를 벌였다. 19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 기업집단국은 이날 여의도 LG트윈타워, 광화문빌딩 등에 조사관 30여 명을 보내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번 조사는 인지가 아닌 신고에 따라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지주회사인 LG와 LG전자, LG화학, 판토스 등 주요 계열사들의 부당지원 및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에 대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업계에서는 계열 물류회사인 판토스에 그룹 차원의 부당지원이 있었는지를 공정위가 확인하려 했던 것 아니냐는 관측

이나온다. 2017년 기준 판토스의 매출액은 1조9978억 원으로, 그룹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매출액에서 내부거래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70%에 달한다. 매출액 중 주요 계열사 거래 비중은 LG전자 35.4%(7071억 원), LG화학 21.0%(4191억 원), LG상사 1.4%(270억 원) 등이다. 구광모 회장 등 LG그룹 특수관계인은 애초 판토스의 지분을 19.9% 보유하고 있었지만,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대상(비상장사 20% 이상)에 살짝 못미쳐 논란이 되자 지난해 말 지분을 모두 정리했다. 따라서 LG그룹에 대한 공정거래법상 총수일가 사익편취 혐의 적용이 불가능하지만 계열사 부당지원 혐의는 적용할 수 있다. 세종=서병근 기자 sbg1219@

연료비 저렴한 LPG 車, 다음주부터 일반인도 구매

국무회의 의결... 초등 1~2년 방과후 영어수업 내달 부활

다음 주부터 일반인도 제한 없이 LPG 차량을 구매할 수 있다.

정부가 19일 국무회의에서 LPG의 자동차 연료 사용 제한을 폐지해 골자로 한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액화석유가스법)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경유차나 휘발유차보다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NOx) 배출량이 적은 LPG 차량 보급이 확산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해 말 기준 LPG 차량은 전체 차량 등록 대수의 8.8%(203만 대) 수준이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도 부활한다.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을 공포한 등이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르면 다음 달부터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후 영어수업을 들을 수 있다.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수업은 지난해 금지됐으나 이번에 풀렸다. 선행학

습을 금지하는 공교육정상화법에서 초등 학교 1·2학년의 '영어 방과후학교 과정'을 예외로 하고 방과후 학교 과정을 허용하는 조항을 다시 넣어 일몰 기한을 2025년 2월 28일까지 연장했다.

아울러 정부는 금융 분야 혁신을 위한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도입하는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시행령을 개정, 금융혁신서비스로 지정되면 금융법상 인허가 및 영업행위 규제에 특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범위는 금융업을 하는 공사·기금, 금융 관련 법령에 따라 설립된 협회, 금융위원회가 설립 허가한 비영리법인 등으로 정했고 이 법은 내달 1일 시행된다.

정부는 이와 함께 대중교통 용도로 국토교통부 장관의 임시승행허가를 받은 자율주행차가 기존 버스전용차선에서 운행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시행령 개정안과 연료전지자동차의 명칭을 국민이 이해하기 쉽게 수소전기자동차로 바꾸는 내용의 친환경자동차법(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도 의결했다. 세종=박병립 기자 riby@

文 대통령 “제조업 살리는 것이 경제 살리는 길”

“규제 샌드박스 등 정책 동원해도 현장 체감도 낮아 전통 주력 제조 분야 대책 잘 돌아가는지 점검” 지시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국가 경제의 근간인 제조업은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라며 “제조업의 활력을 살리는 것이 우리 경제를 살리는 길”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세계 경제 둔화로 세계 제조업 경기 전반이 어려워지고 있으나 그렇다고 외부 탓으로만 돌릴 일이 아니다”며 “우리 제조업의 경쟁력이 낮아지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그간 여러 차례에 걸쳐 제조업 대책을 마련했고 스마트공장과 규제 샌드박스를 비롯한 다양한

정책 수단을 동원해 제조업 혁신을 지원하고 있지만 아직 현장의 체감도는 낮다”며 “특히 전통 주력 제조 분야의 고용 부진이 계속되는 점이 우리 경제의 가장 어려운 점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제조업의 활력을 위해 정부가 전력을 기울이겠다”면서 “주력 제조업의 경우 지난해 내놓은 분야별 대책이 제대로 잘 돌아가고 있는지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구체적으로 △적극적인 중소 조산업계에 대한 지원 강구 △현 대중공업의 대우조선힬양 인수 시 고용

불안 대책 마련 △전기차, 수소전기차 등 친환경차 보급 속도감 있게 추진 △지난 연말 발표한 자동차 부품 산업 대책 신속 시행 △비메모리 반도체 분야 경쟁력 강화 방안 마련 △로봇, 바이오·헬스, 소재·부품·장비, 5G 기반 산업 등 미래 제조업 발전 전략 강화 등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동남아 3국 순방 성과를 설명하면서 “평화·번영의 한반도와 신(新)경제지도는 신남방정책·신북방정책과 함께 완성된다”며 “특히 올해 11월 한국에서 열리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와 처음 정상회의로 승격된 한·메콩 정상회의가 신남방정책을 강화하고 아세안 및 메콩 국가들과의 관계를 획기적으로 발전시키도록 빈틈없이 준비해 달라”고 주문했다. 신동민 기자 lawsdm@



황교안, 손경식 경총 회장 만나
황교안(왼쪽) 자유한국당 대표가 19일 국회에서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장을 만나 악수하고 있다. 연합뉴스

장병완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 산업정책 필요”

국회 비교섭단체 연설

장병완 민주당평화당 원내대표는 19일 “문재인 정부가 중점적으로 추진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은 사실상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장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진행된 비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이 정부의 정책 실행에 국민만 힘들어하고 있다. 정권의 꿈을 이룰 것이 아니라 국민의 소박한 바람에 해답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공허한 혁신성장 대신 기술 중심의 산업정책이 필요하다”며 “탈원전이라는 용어도 단계적 감축(Phase Out)으로 재

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획기적 규제완화와 기술개발에 기반한 미래 산업 정책의 비전을 제시할 것을 정부에 촉구한다”며 범국가적 기술대국 대한민국 비전본부 구성을 제안했다.

장 원내대표는 또 “촛불로 정권을 바꿨지만 국민의 삶은 바뀌지 않았다. 오히려 더 힘들어졌다”며 “문재인 대통령은 ‘촛불 대통령’이 아니라 ‘촛불 이후 대통령’이라고 스스로 겸허해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인사 실패는 이 정부 대표적 독선의 상징”이라며 “야당 시절 엄격한 기준으로 정부 인사들의 도덕성과 무능함을 공격했으나 이 정부 인사 역시 아무런 차이가 없었다”고 지적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 앞두고... 공익위원 8명 사표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익위원 8명이 최근 사의를 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19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류장수 위원장 등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8명은 최근 정부에 사표를 제출했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 9명 중 고용부 소속 이승순 상임위원을 제외한 8명이 모두 사의를 밝혔다. 임기가 2년 이상 남았다.

최저임금위 공익위원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과 무관치 않다. 정부가 추진 중인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은 최저임금위를 전문가만 참여하는 구간설정위원회와 노·사·정 대표가 참여하는 결정위원회로 이원화하는 것이 골자다. 최저임금위가 이원화하면 기존 위원은 모두 사퇴하고 새로 구간설정위와 결정위를 구성해야 한다.

공익위원들이 사표를 제출한 것은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한 행보로 보인다. 최저임금위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아직 사표를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박은평 기자 pepe@

금융의 모든 순간
NH농협금융



국가고객만족도 1위
2018 NCSI 증권 금융상품매매부문



한국산업의 고객만족도 1위
2018 KCSI 증권부문



소비자 중심 경영
공정거래위원회 1 한국소비자
2018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

하지만, 만족에 끝이 어딴습니까?

NH투자증권이 고객만족 부분에서 1등을 했습니다
그러나, 고객 만족에는 끝이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에
앞으로도 계속 고객 여러분들이 만족하는
투자 파트너가 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투자가 고객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새로운 문화가 되는 세상을 만들겠습니다



한국금융투자협회 심사필 제18-05002호(2018-12-19~2019-12-17)
*이 금융투자상품은 예금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지 않으며, 원금손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당사는 이 금융투자상품에 관하여 충분히 설명할 의무가 있으며, 투자에 앞서 그러한 설명을 충분히 들으시길 바랍니다



창립 50주년
CREATE 50



NH투자증권

비트코인, 2개월여 만에 4000달러대 재진입 죽썩던 가상화폐, 변곡점 맞나

“200일 이동평균선 5400달러 회복 때까지는 선부른 판단” 경제

투자 열기가 한풀 꺾인 가상화폐 시장에 새로운 조짐이 일고 있다. 가상화폐의 대표주자 격인 비트코인 가격이 2개월 만에 4000달러를 돌파하면서 가상화폐 시장이 변곡점을 맞은 것이 아니냐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고 블룸버그통신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19일 오후 1시 40분(한국시간) 기준 비트코인 가격은 4047.00달러를 기록 중이다. 비트코인 가격은 작년 12월 3150달러까지 내려갔다가 올 1월 9일에는 4000달러 선을 회복했다. 다만 1년 전 1만9511달러에 비하면 여전히 80% 이상 빠진 수준이다.

전문가들은 4000달러라는 수치가 시장에 주는 의미가 적지 않다고 입을 모은다. 미국 투자 리서치업체 펀드스트레이트 글로벌 어드바이저스의 탐 리 공동 창업자는 “4000달러를 확실히 회복하고 여기서 조금만 더 넘겨주면 시장에는 분명히 도움이 된다”고 평가했다. 그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거시 경제가 탄탄한 흐름을 보이고 있어 가상화폐 가격이 다시 상승 기조를 회

복할 것으로 예측된다”고 말했다. 비트코인 가격 하락 이후 가상화폐 시장을 예의주시해온 투자자들에게 4000선은 중요한 기준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은 덧붙였다.

리 창업자는 2019년 비트코인이 상승 기조를 회복할 만한 환경이 조성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달러가 작년만큼 강하지 않다는 점과 신용시장 중심으로 주식시장이 회복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면서 “가상화폐 가격이 200주 이동평균선(일정 기간의 종가 평균치)을 웃도는 수준에서 추이하는 등 기술적 지표가 안정돼 있다”고 밝혔다.

투자 분위기도 좋은 편이다. 가상화폐 투자에 규제를 받아왔던 연금과 기부금도 코인 시장으로 다시 눈을 돌리고 있다. 가상화폐 헤지펀드 프로체인캐피탈의 데이비드 타일 사장은 “지난 몇 개월간 가상화폐 산업 분야에 긍정적인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다.

가상화폐를 둘러싼 분위기도 개선되고 있다. 미국 페이스북, JP모건체이스, 일본 미즈호은행 등 대기업들이 디지털 통화 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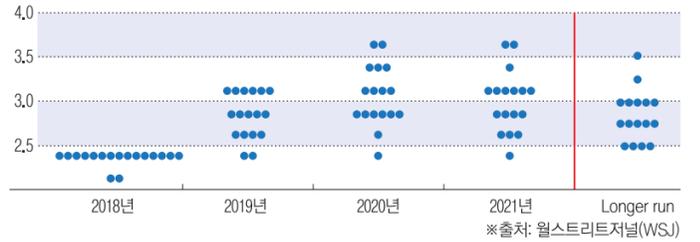
비트코인 가격 추이 (단위: 달러)



에 나섰다. 미국 독립자산운용사 피델리티는 가상화폐 수탁 서비스를 시작했다. 투자자를 대신해 투자 대상 자산을 보관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어서 가상화폐 투자의 위험성을 낮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 인터컨티넨탈익스체인지(ICE) 산하 가상화폐거래소 백트(Bakkt)가 비트코인 선물 거래를 시작하면 암호화폐가 투자대상 자산으로 분류될 가능성도 높아진다.

다만 지나친 기대는 금물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리 창업자는 “가상화폐가 회복 국면에 접어드는 중요 변곡점은 맞지만 200일 이동 평균선인 5400달러로 회복될 때까지 성급한 결론을 내리진 않겠다”며 “강세장으로 전환하는 데 5~6개월은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김영정 기자 0jung2@

작년 12월 미국 연준 FOMC 점도표



점도표만 보면 여전히 '매파' '비둘기' 연준, 멧찍은 스탠스

20일 FOMC서 새 전망 발표 예정...시장 혼란 촉발 우려

미국 연방준비제도(Fed·연준) 위원들이 기준금리 전망을 담은 '점도표' 때문에 고민에 빠졌다.

연준은 매 분기마다 위원 19명의 향후 수년간 금리에 대한 예상치를 점으로 표시한 점도표(dot plot)를 내놓는다. 이에 대해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위원 대부분은 점도표가 가치 있는 의사소통 수단이라고 보고 있지만 실제로는 투자자 사이에서 혼란을 불러일으키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고 18일(현지시간) 지적했다.

연준은 19일부터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 회의에 들어갔다. 20일에는 회의 후 점도표가 포함된 분기 경제전망 보고서를 발표할 예정이다. 최근 연준 위원들의 공개석상 발언이나 인터뷰 등을 살펴보면 이번 점도표는 올해 금리인상이 아예 없거나 한 차례 있을 것이라는 전망을 반영할 것으로 보인다.

문제는 그렇게 되면 불과 3개월 만에 전망이 크게 바뀌게 된다는 점이다. 연준은 지난해 12월 금리 인상을 단행하고 나서 올해 들어서는 완전히 '비둘기 파'로 돌아섰다. 그러나 이달 점도표에서 일부 연준 위원이 올해 여전히 금리

가 오를 것으로 예상하면 연준의 메시지가 불투명해질 우려가 있다. 연준이 금리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시장이 헷갈릴 수 있는 것이다.

제롬 파월 연준 의장도 이 문제를 인식하고 있다. 그는 이달 초 “적절한 이해가 있다면 점도표는 정책에 대한 포괄적 의사소통에 건설적인 도구가 될 수 있다”면서도 “점도표를 둘러싼 부수적인 혼란을 해결할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연준은 FOMC 성명에서 미래 금리 경로에 대한 기대를 형성하고자 이른바 '선제적 안내(forward guidance)'를 사용해왔다. 점도표를 처음 도입한 2012년에는 금리가 상당히 오랜 기간 낮은 상태로 유지될 것임을 시장에 확신시키는 용도로 사용했다. 그러다가 올 1월부터는 연준 위원들이 더 이상 필요성을 못 느껴 선제적 안내와 관련된 문구를 없앴다.

하지만 금리가 더는 경기부양 역할을 하지 않고 전망도 호호해지면서 연준 위원들 사이에서도 점도표를 유지할 것인지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사이클론 '이다이' 짐바브웨 강타 아프리카 짐바브웨 동부 치마나마니에서 18일(현지시간) 한 주민이 사이클론 '이다이'가 휩쓸고 간 뒤 물 무더기에 날려진 차량들을 보고 있다. 지난해 이다이가 모잠비크와 짐바브웨, 말라위 등 아프리카 남부 3개국을 강타하면서 막대한 인명 피해가 발생했다. 짐바브웨는 현재까지 89명이 사망한 것으로 집계됐으며 말라위에서는 56명이 사망했다. 필리프 뉴시 모잠비크 대통령은 이날 대국민 연설에서 “공식적인 사망자는 84명이지만 현황을 살펴본 결과 실제 사망자가 1000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치마나마니/AFP연합뉴스

무역협상 새 복병... 美 반도체업체, 中 수입확대 거부

“중국 영향력 커질 것 우려”... 향후 6년간 300억 달러 구입 제안 반대

미중 무역협상 타결이 임박한 가운데 미국 반도체 업체가 새 복병으로 떠올랐다. 중국 정부가 미국에 제안한 미국산 반도체 칩 수입 확대안을 미 반도체 업체가 거부하고 나섰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은 중국과의 무역협상에서 1조 달러(약 1130조 원)어치 이상의 미국산 제품과 서비스를 수입하도록 중국에 요구했다. 그러나 미국 반도체 업체는 해당 항목에서 반도체를 제외하라고 미 정부에 호소했다. 해당 산업 분야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커질 것으로 우려되기 때문이다.

업체에 따르면 미국 내 반도체 생산 비용이 매우 높는데, 중국에 수입 할당량을 정해 놓으면 미국 반도체 업체들이 중국에

생산 공장을 의무적으로 지을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관료주의적 중국 정부의 통제를 받게 될 것이 뻔하다. 결과적으로 미국 기업의 중국 의존도를 높여 중국 경쟁사들만 좋은 일을 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는 입장이다.

존 네퍼 미 반도체산업협회(SIA) 회장은 “칩 수입량에 관계없이 할당제는 중국의 영향력을 키울 위험이 있다”며 “시장은 정부가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지난해 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는 미국과의 무역협상에서 향후 6년간 20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반도체 칩을 수입하겠다고 제안했다. 이는 현재 미국이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 물량의 5배 규모다. 당시 미국 반도체 업체는 그 목표를 달성하려

면 현재 동남아시아에 있는 생산공장을 다 중국으로 옮겨야만 가능하다고 거부했다. 지난해 미국은 중국에 67억 달러어치의 반도체 제품을 수출했지만,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공장에서 제조돼 중국에 판매되는 제품까지 합하면 800억 달러에 달한다고 업체는 추산한다.

이런 이유로 중국의 미국산 반도체 칩 수입 확대안은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다. 그러나 중국은 지난달 미국산 반도체 칩 수입 규모를 향후 6년간 300억 달러로 줄여 다시 제안했다.

시장조사업체 IBS의 헨델 존스 최고경영자(CEO)는 “중국 기업들은 미국으로부터 중단 없는 반도체 칩 공급을 원하고 있지만 그걸 충족시키려면 필연적으로 중국 반도체 시장이 확대될 수밖에 없다”고 평가했다. 김영정 기자 0jung2@

전 세계 짝퉁상품 부문별 비중 (단위: %, 2016년 기준)



글로벌 무역의 3.3% '짝퉁'

년 5090억 달러...신발 22% 최다

세계적으로 짝퉁상품 거래가 최근 수년간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유럽연합지식재산청(EUIPO)과 18일(현지시간) 공동으로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관 압류 데이터 기준 전 세계에서 5090억 달러(약 575조 원)의 짝퉁상품이 거래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는 2013년의 4610억 달러에서 늘어난 것이다. 짝퉁상품이 전체 무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년 전의 2.5%에서 3.3%로 높아졌다.

OECD와 EUIPO 집계에서 국내 생산·소비되는 짝퉁상품이나 인터넷을 통해 배포되는 불법 제품은 포함되지 않아 실제 짝퉁상품 거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2016년 짝퉁상품 거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품목은 신발로 전체의 22%에 달했다. 의류와 가축제품, 전자제품과 시계, 의료기기, 화장품 등도 짝퉁상품이 많

이 유통된 것으로 밝혀졌다.

짝퉁상품으로 피해를 본 국가들을 살펴보면 프랑스(17%), 이탈리아(15%), 스위스(11%), 독일(9%) 순으로 유럽 국가가 많았다. 한국과 미국, 일본, 영국 등도 피해를 본 국가로 꼽혔다. 싱가포르와 홍콩, 브라질, 중국 등 신흥국에서도 점점 더 많은 기업이 짝퉁상품 표적이 되고 있다고 OECD는 지적했다.

글로벌 짝퉁상품 원산지의 50%가 중국, 25%는 홍콩이었다. 터키와 싱가포르, 태국, 인도 등에서도 짝퉁이 많이 생산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우편이나 속달 택배를 통한 소포 형식이 주요 짝퉁 무역 루트로 꼽혔다. 2014~2016년 전 세계 세관이 단속한 짝퉁 중 우편이 57%, 택배는 12%로, 소포 비중이 69%에 달했다. 이는 2011~2013년의 63%에서 높아진 것이다.

마르코스 분투리 OECD 공공거버넌스 국장은 “짝퉁 무역은 기업과 정부 수입을 빼앗고 다른 범죄 활동의 자금줄이 된다”며 “또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한다”고 경고했다. 배준호 기자 baejh94@

일회용품으로 아픈 지구를 살리는 쉬운 방법?

igreenwegreen

지구를 위해 텀블러를 쓰자
대한민국 **아.그.위.그.** 챌린지
I GREEN WE GREEN

좋아요 51,635,256개
igreenwegreen
#아그위그챌린지 #텀블러트리 #지구살리기 #일회용품노노 #맹그로브나무기부 #쉽다쉽다 #함께해요

실제 맹그로브 숲
열대우림보다 5배 많은
이산화탄소 흡수량으로
지구 온난화 방지

SNS에 #텀블러트리를 인증하고 함께할 친구를 태그해주세요
SK이노베이션이 복원 중인 베트남 맹그로브 숲에 나무 1그루가 더해집니다



아그위그챌린지는 **SK 이노베이션**이 함께합니다

SK 에너지 | SK 종합화학 | SK 루브리컨츠 | SK 안전석유화학 | SK 트레이딩 인터내셔널



아그위그챌린지 자세히 보기
<https://skinnnews.com>

중소 육성 두고... 산은 “주력사업” vs 기은 “우리 업무”

금융 인사이드

‘은행법 개정’ 갈등 조짐

이번 입시국회에서 국책은행을 둘러싼 핵심 이슈는 ‘지방 이전’이다. 하지만 KDB산업은행과 IBK기업은행은 김선동 자유한국당 의원의 ‘중소기업은행법(기은법)’과 ‘한국산업은행법(산은법)’ 개정안에도 관심을 쏟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18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제1차 회의를 열었다. 이날 상정된 법안 중에는 김 의원이 지난해 11월 14일 발의한 ‘기은법’ 개정안이 상정됐다. 내용은 간단하다. ‘업무’ 부분에 해당하는 제 33조 1항에 ‘중소기업 육성’이라는 문구를 더하는 것이다. 같은 날 김 의원은 ‘산은법’ 개정안도 발의한다. ‘업무’에 해당하는 18조에서 2항 ‘중소기업의 육성’과 6항 ‘기업구조조정’의 순서를 2항 ‘기업구조조정’, 6항 ‘중소기업 육성’으로 바꾸는 것이다. 이 개정안도 다음 법안소위에 올라갈 예정이다.

김선동 의원, 산은법 개정안 발의 법안소위 1차 회의서 기은법 상정

특수은행 간 전문성 확보 차원

업무 우선순위 규정 추진에도

산은, 혁신성장 지원 비중 확대

기은 “본연 기능... 법적 명시해야”

김 의원은 개정안 발의 당시 “기은법은 중소기업 육성 업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았지만 산은법에는 이를 규정하면서 중소기업 육성을 기업구조조정보다 편제상 우선하고 있다”며 “특수목적은행으로서 두 은행 간 전문성 확보를 위하여 업무의 우선순위를 보다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마디로 기은의 ‘중소기업 육성’ 역할을 명확히 하는 동시에, 산은의 비중을 줄이는 것이 두 개정안의 핵심인 셈이다.

문제는 산은의 최근 움직임이 이와 정반

중소기업은행법 개정안		산업은행법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3조(업무) 중소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한다. <신설> 1. ~ 10. (생략)	제33조(업무) 1. 중소기업의 육성 2. ~ 11. (현행 제1호부터 제10호까지와 같음)	제18조(업무) ① 한국산업은행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분야에 자금을 공급한다. 1. (생략) 2. 중소기업의 육성 3.~5. (생략) 6. 기업구조조정 7.·8. (생략)	제18조(업무) ① 1. (현행과 같음) 2. 기업구조조정 3.~5. (현행과 같음) 6. 중소기업의 육성 7.·8. (현행과 같음)

*출처: 의안정보시스템 홈페이지

대라는 점이다. 산은은 최근 기업구조조정 비중을 줄이고,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등의 혁신성장에 힘을 싣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난해 12월 조직개편이다. 당시 산은은 혁신성장금융본부를 혁신성장금융부으로 격상하고, 구조조정부문을 본부로 축소했다.

이동걸 산은 회장도 비슷한 맥락의 발언을 주기적으로 해왔다. 최근 기자간담회에서는 “(산은의) 혁신성장 지원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주력사업으로 자리매김 해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직전에 연 기자

회견에서도 “(한국GM, 대우조선, 현대상선보다) 더 중요한 게 혁신성장, 중소기업 지원”이라고 말했다.

이와 반대로 기은은 중소기업 지원이 본연의 기능이니만큼 법적으로도 명시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기은 고위 관계자는 “(기은법에) 해당 내용이 그동안 없었던 것이 이상하다”며 “중소기업 육성을 명시하는 것은 마땅하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서는 이번 개정안이 기은의 뜻을 반영한 것이라는 얘기도 나온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산은이 중소기업, 혁신기업 부

문에서 영역을 넓혀가면서 기은이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할지는 아직 미지수다. 다만 통과하더라도 직접적으로 산은의 정책 방향에 영향을 끼치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국회 관계자는 “법은 큰 방향을 잡는 차원”이라며 “산은의 자금 집행은 행정부의 소관”이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정부나 산은 입장에서 입법부를 신경쓰지 않을 수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다.

김버리 기자 kimstar1215@
김보름 기자 fullmoon@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입니다

대한민국의 가치를 높입니다

금융부채로 어려운 가계에는 희망을
재기를 꿈꾸는 중소기업에게는 기회를
공공자산의 잠재된 가치를
캠코가 만들어갑니다.



가계

금융취약계층 재기 지원
 개인연체자 채무부담 경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리 일원화
 창업실패자 재기 지원
 행복집(JOB)이 취업지원

기업

중소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
 자산매입 후 임대프로그램
 DIP금융(회생기업 자금지원)
 캠코선박펀드 운영

공공

저활용 국·공유재산 가치창출
 유류 저활용 국·공유재산 관리
 노후 국·공유재산 개발
 온비드(OnBid) 운영

캠코는 가계·기업·공공자산의 사회·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공적자산관리전문기관입니다.

캠코 한국자산관리공사

대표전화 : 1588-3570

금감원, 27일 씨티銀 경영실태평가 소비자 보호·내부통제 ‘핀셋 조사’

인력 20여명 투입... 한 달간 검사 결과 따라 종합검사 전환 가능성

금융감독원이 올해 은행권역 첫 경영실태평가 대상으로 씨티은행을 선정했다.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있는 만큼 경영 전 반뿐만 아니라 소비자 보호와 내부통제 등을 강도 높게 들여다보는 방식으로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27일 씨티은행을 대상으로 경영실태평가에 착수한다. 이번 평가는 정기검사의 일환이다. 평가 주기가 격년으로 실시되는 점에서 지난해 하반기 중으로 예정됐지만 지난해 종합검사 시범운영 등으로 미뤄졌다.

금감원 경영실태평가는 20여 명의 조사 인력이 한 달간 검사를 실시한다. 평가는 자본적정성(Capital), 자산건전성(Asset), 경영관리(Management), 수익성(Earning), 유동성(Liquidity), 리스크관리(Risk) 등 6개 항목으로 구성된 ‘카멜(CAMEL-R)’ 방식으로 진행된다.

업계에서는 종합검사 부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이번 검사 수위가 통상적인 수준보다 높지 않겠냐는 우려가 나온다. 경영실태평가 기간이 종합검사 대상 선정 기간과 겹치는 만큼 종합검사로의 전환 가능성도 열려 있다. 금감원 고위관계자는 “자본적정성 등 항목들을 철저히 볼 것”이라며 “다음달 3일 정해지는 평가지표 기준에 따

라 종합검사로 전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종합검사와 뭐가 다르냐’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검사 인력을 20명 이하로 제한하기로 했다. 두 검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투입 인력이다. 종합검사는 30~40명의 대규모 인력을 한 달 가까이 투입해 경영실태를 큰 그림에서 파악한다. 씨티은행의 경우 지난해 우리은행 경영실태평가와 달리 IT부문은 부분 검사로 따로 나갈 예정이다. 함께 파견되는 한국은행 검사단까지 이미 20여 명에 달하는 검사 인력이 채워졌기 때문이다.

또한 소비자보호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도 점검할 계획이다. 민원건수, 민원 증감률, 미스터리 쇼핑결과 등 소비자 보호 항목은 종합검사 주요 평가 지표로 꼽힐 만큼 중요하게 여기는 사항이다. 씨티은행의 고객 10만 명당 민원건수는 2014년부터 4년 연속 은행권 최다 수준을 기록했다. 씨티은행은 ‘2017년도 금융소비자 보호 실태평가’에서 양호 등급이 6개로 타 시중은행(9개)보다 저조한 성적을 받기도 했다.

대출금리 산정 체계 등 내부통제 관리 실태도 중점 검사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은 지난해 6월 가산금리 부당 산정이 적발돼 이자 1100만 원을 환급하도록 조치된 바 있다. 씨티은행의 대규모 지점 폐쇄 과정에서 절차상 충분한 논의가 이뤄졌는지 등도 들여다 볼 것으로 보인다. 씨티은행 영업점은 지난해 말 기준 전국 44개로 제일 적다. 김보름 기자 fullmoon@

저축銀, 작년 당기순익 1.1兆

지난해 저축은행은 건전성과 순이익이 모두 증가해 양호한 경영 현황을 기록했다. 다만 전체 가계대출 증가세는 줄었지만 개인사업자 대출이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모니터링에 나설 전망이다.

금감원은 19일 전국 79개 저축은행 잠정 영업실적을 발표했다. 먼저 자산 건전성 부문에선 연체율과 ‘고정이하여신’ 비율이 모두 하락했다.

지난해 말 총여신 연체율은 4.3%로 전년

대비 0.3%포인트(P) 감소했다. 기업대출 연체율은 PF대출 연체율 하락으로 전년 대비 0.5%p 내린 4.2%를 기록했다. 가계대출 연체율은 같은 기간 0.1%p 상승한 4.6%로 나타났다. 주택담보대출은 0.1%p 하락했지만, 가계신용대출은 0.2%p 상승했다.

지난해 저축은행 당기순이익은 1조1185억 원으로 2017년보다 3.9%(423억 원) 증가했다. 이는 대출 확대에 따른 이자이익(4430억 원) 증가분과 비이자 이익 감소(1130억 원), 대손충당금 전입액 증가의 영향으로 분석됐다. 정용욱 기자 dragon@

기업회생 보고서

③ 온양관광호텔

주인이 빌려 간 돈 때문에 회생법원을 찾은 회사가 있다. 충남 아산시에 자리한 '온양관광호텔'이다. 1905년부터 시작해 우리 근대사와 궤적을 같이했지만, 그간 수많은 주인을 거치며 '스스로' 존재하지는 못했다. 맥없이 주인 손에 끌려왔어도, 곳곳하게 호텔로서의 입지를 세우 천안이 고향인 굴지의 회장을 만났다. 2015년 경제계뿐만 아니라 정치계까지 떠들썩했던 고(故)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이자. 운명의 장난처럼 그에게 준 보증서 한 장에 호텔은 쓰러졌고 이제는 또다시 주인을 찾는다. 호텔로 빌려들인 돈은 이자로 다 까먹고, 이제는 그나마 갖고 있던 땅도 팔아 생면부지 주인의 빚을 갚아주게 생겼다. 로미오와 줄리엣보다 더 비극적인 온양관광호텔이 기업회생 보고서 3번째 주인공이다.

1995
온양관광호텔 법정관리

2001
온양관광호텔 대야건설에 피인수

2003.07
대야건설로부터 온양관광호텔 물적 분할

2015
모기업 경남기업 법정관리

2017.01
경남기업 SM그룹에 피인수

2018.04
온양관광호텔 회생절차

2019.01
회생법원 대명중건의 온양관광호텔 인수안 '강제' 선고

성완중 전 경남기업 회장



열어지는 '성완중 주홍글씨'... 그의 '외사랑'서 헤어나다

"A사를 제외하면 66.77%에 해당하는 채권단이 동의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채무를 변제받는 것이 채권자 입장에서 유리하다. (서울회생법원 재판부)"

2019년 1월 30일, 서울회생법원 재판부는 온양관광호텔을 대명중합건설의 관계사인 태풍루체에 매각하는 안을 '강제'로 인가했다. 채권자의 동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지만, 재판부는 호텔의 청산을 낚을 순 없다고 판단한 것이다. 2018년 4월부터 회생법원을 찾은 온양관광호텔은 그해 11월 매각이 한 차례 유찰된 경험이 있다. 매각은 사실상 마지막 기회였다.

반대 의사를 밝힌 A사는 회생채권자의결권 총액의 30.11%를 들고 있던 '경남기업'이다. 이곳 회생법원에서 경남기업은 채권자 자격으로 온양관광호텔을 마주했지만, 호텔의 100% 지분을 들고 있던 주인이자, 호텔을 회생법원까지 데리고 온 장본인이기도 했다. 그런 그는 떠나보낼 자식을 가엾게 여기지 않았다. 회생절차 과정을 문제 삼고, 현재 항고를 진행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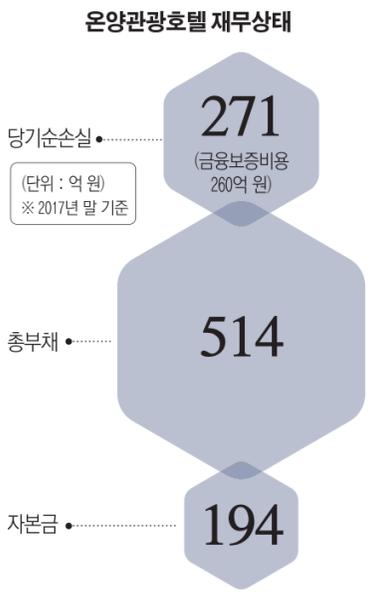
◇천안의 경제 활성화를 위해 인수했다? = 둘의 만남은 2000년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현대화 작업이 지체되면서 손님들의 발길이 끊긴 온양관광호텔은 1995년부터 법정관리 중이었다. 고(故) 성완중 씨가 회장으로 있던 대야건설(경남기업의 전신)이 호텔의 지점을 폐쇄하고, 현재 위치의 온양관광호텔을 회사 호텔 부문으로 편입시킨 것이 시작이다.

"내 고향 충청남도와 사업상 인연을 맺

을 기회가 찾아왔다. (...) 지역유지들로부터 온양관광호텔을 인수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제안이 들어온 것이다. 호텔업에는 문외한인 데다, 온양관광호텔이 사업 규모도 작아 망설이고 있는데, 그분들은 책임자가 나밖에 없으며 설득을 계속했다." '새벽빛, 성완중 지음'

성완중 회장은 온양관광호텔 자체는 사업성이 떨어진다고 봤다. 그런데도 이를 인수한 것은 온양관광호텔을 허물고 인근 상가를 개발해 5000평 규모의 대형복합센터를 지으려 했기 때문이다. 사실상 아산시의 대표적인 '랜드 마크'로 키울 심산이었다. 성 회장이 "한꺼번에 거액을 회수할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할 정도다. 허물 계획을 하고 있었기에, 처음에는 대야건설의 자회사가 아닌 호텔 부문 사업으로 편입시킨 것이다.

하지만 성 회장은 이를 철회했다. 온양관광호텔은 아산시의 '온양온천' 터를 기반으로 성장했다. 또 호텔 안에는 조선시대 문화재인 영괴대(충남문화재자료 228호)가 있다. 사유지임과 동시에 문화재인 독특한 호텔이다. 개발을 위해서는 시와 문화재청의 허가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성 회장은 "아산시와 유지들이 반대했다"라고 적었지만, 이에 대해 아산시 측은 "모르는 일"이라고 밝혔다. 대신 성 회장은 호텔의 내부 시설을 리모델링하고 증축 공사를 하는 것으로 마무리했다. 이후 온양관광호텔은 2003년 7월부터 물적 분할돼 경남기업의 100% 자회사로서 직접 재무제표를 생산했다.



호텔 총자산 버금가는 금액 '모기업' 경남기업에 지급 보증

년 이자만 20억, 부실 낙락으로 총부채 514억 완전자본잠식

법원, 청산보다 채무 변제 결론 대명중합건설에 강제 매각 인가

경남기업 "변제를 낮게 배정" 회생절차 문제 삼으며 '태클'

◇배보다 더 큰 배꼽- 이자비용이 당기순이익의 10배 = 인수된 이후 호텔 자체 수익은 나쁘지 않았다. 문제는 급속도로 불어나는 '이자비용'이 호텔을 갚아 먹었다. 온양관광호텔은 장·단기차입금 때문에 매년 15억~20억 원에 달하는 이자를 지급하면서 간신히 1억 원 수준의 당기순이익을 내고 있었다.

과도한 이자비용의 근원은 호텔 자체의 부채가 아닌, 모기업이 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부채 탓이었다. 건설경기 악화로 경남기업도 위기를 겪고 있었다. 호텔 건물과 부지를 담보로 온양관광호텔은 경남기업의 지급보증을 썼다. 호텔 자산에 버금가는 규모였다. 더욱이 운영 자금에 필요한 금융 차입도 있던 터다. 물론 경남기업이 모기업으로 존재하는 이상 '터지지 않는 폭탄'일 뿐이었다.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성완중 회장이 검찰에 기소되고,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분식회계' 논란이 빚어지며 경남기업도 회생절차에 들어갔다. 경남기업이 법정관리가 종결되면서 온양관광호텔의 주채무는 면책됐지만, 보증채무는 그대로 남았다. 경남기업이 삼라미아디스(SM)그룹으로 인수되면서 호텔의 토지와 건물이 땅망 온양관광호텔의 금융보증부채로 잡혔다. '터지지 않는 폭탄'이 재무제표에 반영되면서, 빵! 터진 것이다.

◇마지막 기회?~ 대명중건의 인수 제안 = 온양관광호텔의 2017년 한 해 당기순손실은 271억 원으로 전년(2억4000만 원)보다 111배 늘었다. 총부채는 514억 원

로 완전자본잠식에 빠졌다. 이 결산 실적이 공시된 시점에 온양관광호텔은 회생법원의 문을 두드렸다.

온양관광호텔은 성 회장의 로비 창구로도 유명(?)했다. 충청권의 사랑방으로 통했다. '성완중 리스트'로 불거진 정·관계 인사들이 온양관광호텔 객실에서 만남을 이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성 회장의 측근이었던 온양관광호텔의 대표이사에 대한 조사까지 이뤄졌다. 호텔을 없애고 대규모 경제복합 단지를 구상하려했던 그의 계획이 현실이 됐다면, 아니 처음부터 만나지 않았더라면 온양관광호텔과 그의 미래는 달랐을까.

입찰 과정에서 대명중합건설이 들어온 건 온양관광호텔로서도 의아했다. 시장에서 호텔은 매물로서 좋게 평가받지 못한다. 사업성이 낫다는 이유에서다. 특히나 건설사와 사업 시너지를 발휘하기도 어렵다.

청산가치를 263억 원으로 책정하고 온양관광호텔은 이 안을 받아들였다. 더는 미루거나 거절할 선택지도 없었다. 이것을 거절하면 호텔은 자산을 매각해 부채를 갚아야 한다. 경남기업 측이 끝까지 회생 계획을 문제 삼았던 것은 자신들에게 배정된 낮은 변제율 때문으로 해석된다. 온양관광호텔 관계자는 "청산 절차를 밟으면 호텔 건물과 대지 등을 팔아 돈을 더 회수할 수 있었지만, 호텔 직원들은 직장을 잃고 고객은 호텔을 잃는 것"이라고 말했다.

곽진산 기자 jinsan@

김종하 온양관광호텔 대표이사

“모기업서 한 푼도 못 받아... 개인 돈 빌려 월급 주기도”

“호텔이 혼자 자생만 했다면 여기까지 오지 않았을 것입니다.”

김종하(사진) 온양관광호텔 대표이사는 본지와 인터뷰에서 모기업 경남기업의 실적 악화와 더불어 일명 '성완중 스캔들'에 휘말리며 법정관리까지 겪었던 사연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호텔이 1년에 12억~14억 원씩을 변제하면서 살아왔다. 하지만 그렇게 쓰인 돈은 호텔에 투자되지도 않았다”라

“매각 실패하면 경매로 넘어가 직원 고용 등 영업 혼란 불가피 법정관리에 호텔 살리고 싶어”

고 밝혔다.

김대표는 “(모기업) 경남기업에서 단 10원도 투자 도움을 주지 않았다. 호텔이 벌어서 직원 급여도 주고, 수리하고 3



년간 살았다. 급여를 줘야 하니까 가지고 있던 재산도 다 팔았다. 개인적으로도 빌려왔고. 연봉은 올리지도 그럴 생각도 없었다. 후의 처신에 대해선 생각하지 않는다”고 얘기했다.

경남기업이 인수 절차를 문제 삼고 항고를 한 데 대해서 김 대표는 “회생절차

변제율에 대해서 얘기할 수는 있지만, 회생절차를 문제 삼는 것은 인용되기도 힘들다. 호텔이 청산되면 대지값만 400억 원 정도 나오니, 그게 아까운 게 아니었다. 경매에 들어가면 정리되고 쉽게 가져갈 수 있는데, 갑자기 인수업체가 등장했으니 자기를 입장에서선 휘방꾼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김 대표가 회생절차에서 가장 어려웠던 것은 '돈의 논리'였다. 그는 “인수자들

누구든 실리가 중요하지, 기업 윤리는 생각하지 않는다. 시세차익을 가져가면 그만”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그는 “매각이 안 되면 경매로 넘어간다. 영업도 물론 혼란스럽다. 직원 고용도 흩어지고 다시 정상 궤도에 오르기 위한 시간이 꽤 오래 걸린다. 이렇게 되면 호텔이 망가질 가능성이 크다”며 호텔에 대한 애정을 드러냈다.

마지막으로 그는 “호텔에 온 목적도 법정관리하에서 살리기 위해서 온 것”이라며 “20년 뒤에도 놀러 와서 근무했다는 생각을 하고 싶었다. 회생 종결까지만 생각하고 그 이후는 생각 안 한다”고 덧붙혔다.

곽진산 기자 jinsan@

LG, 로봇 상표권 대거 출원...이달만 22개 확보

로봇 사업 원년 주도권 확보
전사 역량 CEO 직속 부서로
상반기 클로이 홈 로봇 출시

LG전자가 로봇 상표권 확보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달 출원한 상표권만 무려 22개다. LG전자는 올해를 로봇 사업 원년으로 삼고 시장 주도권을 잡겠다는 전략이다.

19일 특허청에 따르면 LG전자는 13일 미니봇(MiniBot), 퓨어봇(PureBot), 에이아이봇(AiBot), 메디봇(Medibot), 플라잉봇(FlyingBot), 셰프봇(Chefbot

), 버디봇(BuddyBot), 키친봇(KitchenBot) 등 15개의 로봇 상표권을 출원했다. 앞서 8월에 1개, 6월에도 6개의 로봇 상표권을 냈다.

LG전자는 꾸준히 로봇 상표권과 관련 기술 특허를 확보해 왔지만, 이처럼 상표권을 비슷한 시기에 대거 출원한 건 처음이다. 미래 먹거리인 로봇 사업에서 시장을 선점하기 위한 행보로 풀이된다.

출원한 상표권을 통해 어떤 종류의 로봇인지 유추해 보면, 직접 요리(Chefbot)를 하거나 의료 보조(Medibot)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되는 로봇이 향후 시장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LG전자가 6일 출원한 로봇 상표권과 관

련한 정보는 이미 공개됐다. LG전자는 10일 음악, 영화, 기술 등을 망라하는 세계 최대 규모 페스티벌인 사우스바이 사우스웨스트(SXSW)에 참가해 다양한 제품을 소개했는데, 로봇 제품도 포함됐다.

LG전자가 이번에 새롭게 공개한 로봇 콘셉트 제품은 △감성케어에 특화된 LG 클로이 케어봇(CareBot) △보안카메라 기능을 탑재한 LG 클로이 캠봇(LG CLOi CamBot) △제품 전면에는 디스플레이를, 뒤쪽에는 프로젝터를 탑재한 LG 클로이 메이트봇(MateBot) △가족 개개인의 집사처럼 일상생활을 편리하게 해주는 LG 클로이 소셜봇(SocialBot) △손동작 기반의 비언어적 표현에 특화된 LG 클

로이 제스처봇(GestureBot) 등이다.

LG전자는 로봇 시장을 선점해 이 분야 최고 기업이 되겠다는 각오로 전사적인 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지난해 말 조직개편에서 CEO 직속의 '로봇사업센터'를 신설했고, 올 초에는 네이버랩스와 로봇 분야의 연구개발과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협력(MOU)을 맺었다.

LG전자는 생활·공공·산업·웨어러블·엔터테인먼트 등 총 5가지 카테고리로 로봇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다. 로봇 제품 상용화의 스타트는 LG 클로이 홈 로봇이다. LG전자는 이달 초 아동용 교육 콘텐츠 전문업체 '아들과딸'과 협약을 맺었다.

LG전자가 개발하는 인공지능 로봇에

아들과딸의 아동용 도서 앱 '아들과딸북클럽'을 탑재한다. 아들과딸이 제공할 콘텐츠는 70여 출판사의 9만여 개에 이른다.

'LG 클로이'는 아이들에게 동화를 읽어 주거나 자장가를 들려줄 뿐만 아니라 신나는 노래에 맞춰 춤을 추는 등 아이들을 위한 훌륭한 친구가 될 수 있다. 특히, 표정과 음성으로 즐거움, 슬픔 등 다양한 감정을 표현할 수 있고, 카메라가 얼굴을 인식하고 시선을 맞출 수 있어 실제로 대화하고 있다는 느낌을 준다.

LG전자 관계자는 "상반기 내에 아들과딸 콘텐츠가 탑재된 LG 클로이 홈 로봇을 출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송영록 기자 syr@

IHS마켓 韓 디스플레이 콘퍼런스

“OLED 1위 韓, 이대론 中에 역전”

中 업체 6세대 라인으로 성장
롤러블 등 '폼팩터 혁신' 필수

“한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은 잃을 게 없는 상황에 놓였을 정도로 위기에 처했다.”

시장조사기관 IHS마켓이 19일 서울 양재동 엘타워에서 열린 '2019년 상반기 한국 디스플레이 콘퍼런스'에서 디스플레이업계의 상황을 이같이 진단하고 “롤러블·폴더블 등 폼팩터(제품 형태) 혁신을 통해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 자리에서 데이비드 시에 IHS마켓 전무는 “중국 정부는 자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증설할 때 건설비용의 최대 50%를 지원한 적도 있다”며 “공장이 본격적으로 가동됐을 때도 당국은 보조금 형태로 기업을 지원한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는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당국의 전폭적인 지원을 받는 중국 디스플레이 업체들의 성장으로 인해 위태로운 상황에 처해 있음을 지적한 것이다.

대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중국은 일찌감치 우리나라를 제치고 1위 자리를 차지했다. IHS마켓에 따르면 중국의 BOE는 지난해 대형 TFT-LCD 디스플레이 출하량에서 대수 기준 23%의 시장 점유율로 1위를 기록했다.

정운성 IHS마켓 상무는 “면적 기준에서 우리나라 업체들이 여전히 선두를 차지하고 있지만, 현재 추세대로라

면 중국 업체들에 역전을 허용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중소형 디스플레이 시장에서도 우리나라는 안심할 수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 전자업체 TCL 자회사인 차이나스타(CSOT)는 지난해 10월 중국 우한 공장에 6세대 아몰레드 생산 라인을 가동했다.

BOE 또한 작년 12월 푸저우시에 6세대 플렉시블 아몰레드(AMOLED) 디스플레이 생산시설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또 시에 전무는 “스마트폰용 OLED(유기발광다이오드)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삼성디스플레이가 압도적인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지만, 중국 업체들도 최근 지속적인 성장을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IHS마켓은 폼팩터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롤러블·폴더블 디스플레이 등 중국이 아직 제대로 된 기술력을 확보하지 못했다고 평가받는 고부가가치 시장에서 우리나라 업체가 적극 투자해 디스플레이 시장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 전무는 “BOE가 디스플레이 시장에서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지만, 하이엔드 디스플레이 시장을 주도하는 업체는 아니다”라며 “삼성디스플레이, LG디스플레이로 대표되는 한국 업체들이 하이엔드 시장을 리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한영대 기자 yeongdai@

국제선 유류할증료 최고 6만원대로 오른다

내달부터 국내선 4400원으로

국제유가 상승으로 다음 달 국제선 항공권 유류할증료가 또 오른다.

19일 항공업계에 따르면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3단계에서 5단계로 두 단계인상된다.

유류할증료는 싱가포르 항공유의 깔린당 평균값이 150센트 이상일 때 단계별로 부과하며, 그 이하면 0원이다. 멀리 가는 여행객이 더 많은 금액을 내는 '거리 비례 구간제' 방식이 적용되는 것이다.

4월 국제선 유류할증료 기준이 되는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싱가포르 항공유 평균값은 배럴당 79.84달러, 깔린당 190.09센트로 5단계에 해당한다. 이에 따라 유류할증

료는 다음 달 발권 기준 편도 최고 3만4800원에서 6만1200원으로 인상된다.

대한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1만 마일 이상까지 총 10개 구간으로 나눠 유류할증료를 차등 부과한다. 4월 적용 예정인 5단계에 해당하는 유류할증료는 최저 8400원부터 최고 6만3600원까지다. 다만, 10구간에 해당하는 1만 마일 이상 노선이 없어 실제 부과되는 최대 액수는 6만1200원(9단계)이다. 아시아나항공은 500마일 미만부터 5000 마일 이상 등 총 9단계로 나눠 유류할증료는 9100원부터 최고 5만1800원까지다.

한편, 4월 국내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1단계 오른 4단계(4400원)로 인상된다. 하유미 기자 jscs508@



TV 안 볼 땐 감성 '매직 스크린' 삼성전자는 유명 아티스트들과 협업해 QLED TV의 '매직스크린' 전용 콘텐츠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매직 스크린'은 TV를 보지 않을 때 화면에 뉴스·날씨·사진·음악 등 소비자가 원하는 콘텐츠와 생활정보를 제공해 주는 기능으로 2018년형 QLED TV에 처음으로 적용됐다. 이번 협업에 참여한 아티스트는 영국의 모델 겸 화가인 탈리 레녹스(Tali Lennox)와 네덜란드 출신 디자이너 듀오인 스킨 & 바잉스(Scholten & Baijings)다. 탈리 레녹스는 유희물감으로 그린 추상화로 유명하며, 스킨 & 바잉스는 부드럽고 따뜻한 감성의 도자기, 세련된 색채의 패브릭 제품 등으로 주목받고 있다.

사진제공 삼성전자

금호피앤비화학 새 대표에 신우성 前 한국바스프 대표

금호석화그룹 첫 외부 CEO

금호석유화학그룹(회장 박찬구)이 자회사 금호피앤비화학의 신임 대표이사에 신우성(사진) 전(前) 한국바스프 대표이사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외부 인사 출신의 대표이사 내정은 그룹 최초다.

신우성 신임 대표이사는 1957년생으로 서울대 공업화학과를 졸업한 후 1982년 SKC에 입사, 화학업계에 첫발을 내딛었다. 1984년부터 2018년까지 비에이에스 에프코리아(현 한국바스프)에서 근무했



고, 2011년에는 한국바스프 대표이사에 취임했다.

2012년에는 코트라 창립 50주년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2015년에

는 사단법인 다국적기업 최고경영자협회 회장을 지냈다.

금호석유화학그룹은 이번 인사를 통해 능동적 변화의 물결을 기대하고 있다.

금호피앤비화학은 신우성 대표이사 체제하에서 회사 전반의 프로세스를 환기하고, 주력사업 내실을 강화할 뿐 아니라 새

로운 시각을 접목해 진일보하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976년 페놀·아세톤 생산업체로 설립된 금호피앤비화학은 폴리카보네이트(PC) 등 고성능 엔지니어링 플라스틱(EP) 등의 소재인 BPA를 주력으로 생산하고 있다.

중국 등을 중심으로 향후 점진적 수요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금호피앤비화학은 2016년 BPA 핵심 원료인 페놀, 아세톤, 큐멘 등의 생산설비를 증설, 현재 세계 5위 수준의 BPA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다. 변호선 기자 hsbun@

LS전선 '미세먼지 저감' 선박용 케이블 출시

LS전선이 미세먼지 저감 효과를 갖춘 선박용 케이블을 출시했다.

LS전선은 선박용 육상 전원 공급 케이블을 출시하고, 주요 선박 제조업체들을 대상으로 본격 마케팅에 나섰다. 19일 밝혔다.

이 케이블은 선박이 항만에 정박 중 필요한 전기를 육상 설비에서 공급받는 데 사용된다.

기존에는 주로 병커C유를 연료로 사용해 엔진을 가동, 자체적으로 전기를 만들

어 사용했다. 육상에서 전기를 공급받게 되면 미세먼지와 황산화물 등의 대기오염 물질이 발생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

육상전원공급설비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항만지역 등 대기질 개선에 관한 특별법안'이 13일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관련 시장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육상전원공급설비는 선박 접안 시 선박에서 필요한 전기를 육상으로부터 공급받는 설비를 말한다. 권태성 기자 tskwon@

진에어 서울역 도심공항 입점
30일부터 탑승 수속 서비스

진에어는 18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입점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진에어는 지난해 시행한 광명역과 삼성동(코엑스)에 이어 서울역까지 도심공항터미널 탑승 수속 서비스를 확대했다. 고객들은 가까운 도심공항터미널에서 탑승 수속 및 수하물 위탁, 출국 심사 등을 미리 진행하고 인천공항까지 편리하게 이동하면 된다. 진에어의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 서비스는 30일 탑승 수속을 시작한다. 안경무 기자 noglasses@



[모두의 최애돌]을 [언제든 내 눈앞]으로

이거 레알? U+ AR 5G

무대 위 춤신청하를
내 눈앞으로 불러보세요

청하를 360°로 돌려보고
함께 찍은 영상까지 공유하는
이 힙한 일상

오직 유플러스 5G에서만



※ 5G 서비스 예정 | 유플러스 AR 스튜디오에서 4K 카메라를 통해 3D 360° 캡처 기술로 촬영한 AR콘텐츠

5 일상을 바꿉니다





지난해 6월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 국제항공운송협회(IATA) 제74차 연차총회에서 다음 개최지와 주관 항공사로 서울과 대한항공이 결정됐다.

사진제공 대한항공

6월 '세계 항공사 유엔 총회' 서울서 열린다



대한항공 10년간 유치 공들여
회원사 대표 등 1000여명 참석
韓 항공산업 발전 이정표 전망

6월 1~3일 대한민국 사상 최초로 서울에서 '항공업계의 유엔 회의'라고 불리는 국제항공운송협회(IATA:International Air Transport Association) 제75회 연차총회(AGM:Annual General Meeting)가 열린다.

IATA는 현재 전 세계 120개국 287개 민간 항공사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명실상부한 항공 관련 국제 협력기구다. 특히 국제 항공업계의 정책 개발, 규제 개선, 업무 표준화 등 항공산업 발전 및 권익을 대변하고 있다. 또 회원 항공사들의 안전운항을 위한 감사 프로그램(IOSA:IATA Operational Safety Audit)을 운영하며 안전운항 강화에도 힘쓰고 있다. 이같이 국제 항공산업 전반을 주도하고 이끄는 IATA에서 가장 중요한 행사가 바로 매년 전 세계 각국을 돌며 개최되는 연차총회다.

◇ 한국 최초 IATA 연차총회 개최 일등공신 대한항공 = 대한민국에서 사상 최초로 열리는 IATA 연차총회를 성공적으로 이끈 곳은 대한항공이다. 특히 올해 창립

50주년을 맞은 대한항공은 1989년 1월 국적사 최초로 IATA에 가입한 이래, 지속적으로 글로벌 항공업계에서의 위상 강화에 노력해왔다.

연차총회를 대한민국에 유치하는 것이 쉬운 과정은 아니었다. 한동안 북핵 위기로 서울 개최에 회의적인 시각도 있었다. 이 같은 상황에서도 대한항공은 2009년부터 10여 년간 끊임없이 IATA와 회원사들을 설득해왔다. 이 과정에서 IATA의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의 위원직을 20년 가까이 지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의 역할이 큰 힘이 됐다. 조 회장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에도 한몫했다.

◇ 대한민국 위상 높이고 항공산업 발전하는 기회 = IATA 연차총회 기간에는 전 세계 항공산업의 트렌드 및 변화 모색을 위한 다양한 정보가 교환된다. 2019년 항공산업이 어떤 방향으로 흘러갈지, 이 같은 변화가 항공산업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가장 최일선에서 알 수 있다는 의미다. 전 세계 항공업계를 관통하는 정책과 철학



2016년 6월 2일 IATA 연차총회에 참석한 조양호(뒷줄 왼쪽에서 5번째) 한진그룹 회장.

사진제공 한진그룹

이 결정되는 셈이다. 게다가 각 회원 항공사의 최고경영층 및 임원, 항공기 제작사 및 유관 업체 등 전 세계 각계에서 1000명 이상의 항공산업 관련 인사들이 참석한다.

이번 연차총회 개최는 대한민국 항공산업의 글로벌 위상을 드높일 수 있는 좋은 기회다. 전 세계 항공업계의 이목이 대한민국에 오롯이 집중되기 때문이다.

특히 우리나라는 2019년 올 한 해 항공산업 트렌드를 이끌어갈 리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항공뿐 아니라, 개최하는 국가의 정치·경제·문화·관광 등

에 파급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최첨단 유관 산업분야까지 외연을 넓힐 수 있는 계기도 될 것이다. 최고 수준의 환승 경쟁력을 보유한 최첨단 인천공항 제2여객터미널을 자연스럽게 소개하며, 대한민국의 아름다움과 관광 경쟁력까지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 국제 항공산업 주도하는 IATA 어떤 곳? = IATA는 1945년 쿠바의 하바나에서 설립된 국제 협력기구다. '항공업계의 유엔'이라 불릴 정도로 공신력이 있다. 캐

나다 몬트리올과 스위스 제네바 두 곳에 본부가 위치하고 있으며, 전 세계 53개국에 54개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다.

IATA는 크게 연차총회, 집행위원회, 분야별 위원회 등 3개의 회의체를 통해 각종 주요 의사 결정을 내리고 있다.

1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연차총회에는 회원사의 최고경영층, 제작사 및 유관업체 관계자, 언론매체 등이 대거 참석한다. 연차총회에서는 IATA 결의안 채택 및 주요 의사결정에 대한 승인이 이뤄진다. 사실상 글로벌 항공업계의 정책과 철학을 이끄는 중요한 회의다.

전 세계 회원사 대표 중 31명으로 이뤄지는 집행위원회는 연 2회 개최된다. 특히 산하 부문별 정책방향을 결정하며 예산, 간부 임명, 회원사 가입·탈퇴 등 IATA 운영과 관련한 사항을 승인한다. 31명의 집행위원회 위원 중 총회를 통해 별도 선출된 11명의 핵심 위원으로 구성,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주요 전략 및 세부 정책 방향을 결정한다.

분야별 위원회는 화물, 환경, 재무, 산업, 법무, 운항 등 총 6개 분야로 이뤄진다. 각 분야에는 20명 이내의 위원들이 소속돼 있다. 부문별 IATA 정책 및 전략, 캠페인 활동 계획 등을 수립한다.

“조양호 회장 글로벌 항공 리더십 기대된다”

IATA 위원 20년 이상 맡아
주요 전략·예산 등 결정 주도

“성공적 개최는 물론 이를 견인할 조양호 회장의 리더십이 기대된다.”

6월 1일 서울에서 열리는 IATA 연차총회를 앞두고 항공 및 관광업계에서 내비친 조양호(사진) 한진그룹 회장에 대한 기대감이다.

조 회장은 서울 IATA 총회에서 의장직을 맡는다. 이번 총회에서 그 동안 쌓아온 세계 항공업계에서의 풍부한 경험

과 노하우를 어떻게 발휘할지 주목된다. 대한항공이 세계 항공업계 리더로서의 역할을 시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이기 때문이다.

IATA 연차총회를 사상 처음으로 대한민국에서 개최할 수 있게 된 것도 조 회장의 역할이 컸다는 평가가 나온다.

항공업계의 한 관계자는 “IATA 연차총회가 서울에서 열리게 된 것은 전적으로 조 회장의 적극적인 유치 노력과 숨은 항공 외교에 힘입은 바 크다”고 말했다.

실제 대한항공이 1989년 1월 국적사

최초로 IATA에 가입한 이후 조 회장은 핵심적 역할을 맡으며 글로벌 항공사로서의 입지를 굳혔다. 그는 1996년부터 IATA의 최고 정책심의 및 의결기구의 위원직을 20년 이상 지냈다.

2014년에는 31명의 집행위원 중 별도 선출된 11명의 전략정책위원회(SPC) 위원으로 선임돼 △주요 전략 및 세부 정책방향 △연간 예산 △회원사 자격 등의 굵직한 결정을 주도했다.

조 회장이 민간 외교관으로서의 역할까지 담당하며 국내 항공산업과 관광산업의 전기를 마련하는 데 리더십을 열

마나 발휘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대한항공도 IATA의 분야별 6개 위원회 중 4개 위원회의 핵심 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전 세계 항공업계를 이끄는 선도 항공사 역할을 담당해왔다.

항공업계 관계자는 “이번 IATA 연차총회가 대한민국의 국위선양과 국토의 아름다움, 관광 경쟁력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라는 점에서 의장을 맡은 조 회장의 역할이 크고 무겁다”고 말했다. 이어 “조 회장이 2018평창동계올림픽 유치위원장 및 조직위원장을 잇따라 맡으며 대한민국의 위상과 경쟁력을 전 세계에 널리 알렸기 때문에 이번에도 항공업계의 기대가 크다”고 덧붙였다.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22일 판가름... KT ‘축각’

KT-스카이라이프 점유율 31%... 딜라이브 인수 뎀 33% ↑
과방위서 재도입 결정나면 KT 유료방송 사업 사실상 무산
업계 “시장 점유율 규제정책 시대 뒤떨어져... 성장 걸림돌”

유료방송 시장의 점유율을 제한하는 합산규제가 22일 국회에서 논의된다. 합산규제가 유료방송 시장의 틀을 바꿀 수 있는 강력한 규제인 만큼 재도입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9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22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법안심사2소위에서 유료방송 합산규제 재도입 법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유료방송 합산규제는 IPTV(인터넷 TV), 케이블TV, 위성방송 등 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한 제도다.

사실상 시장에서 KT와 KT 스카이라이프의 독주를 막기 위한 장치였다. 2015년 6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3년 동안 한시적으로 운영됐다. 하지만 합산규제 일몰 직후 다시 도입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돼 재논의가 시작됐다.

KT 진영(KT·스카이라이프)에선 이번 논의 결과가 향후 유료방송 사업을 좌우할 만큼 중요하다. 합산규제가 재도입되면 KT는 사실상 케이블TV 업체를 포기해야 한다. 현재 KT(20.67%)와 스카이라이프(10.19%)의 시장점유율을 합치면 30.86%로 케이블 업체를 인수하면 33%를 넘기 때문이다. KT는 케이블 업계 3위인 딜라이브(6.45%)를 잠정 인수 대상 업체로 선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합산규제 예정대로 폐지해야 유료방송 경쟁력 높아진다”= 경쟁사인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이 연이어 케이블TV 업체 인수를 발표했다. 반면, KT는 합산규제 재도입 논의가 9개월간 제자리걸음에 그치면서 유료방송 시장에서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앞서 LG유플러스는 CJ헬로 인수를 공식 발표하고 정부에 기업결합 승인 심사 신청서와 최대주주 및 최대액 출자자 변경

유료방송 합산규제 논의 일지

시기	내용
2015년 6월	합산규제 도입
2018년 6월	- 합산규제 폐지(일몰) - 추혜선·김석기 의원 재도입 법안 발의
	재도입 법안 첫 논의
2019년	국회, KT, 스카이라이프 분리 요구
	국회 재도입 논의 연기
	국회 재도입 논의

승인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했다. 정부 심사를 통과하게 되면 CJ헬로의 유료방송 시장 점유율 13.02%를 품고 24.43%로 업계 4위에서 2위로 치고 올라온다.

SK텔레콤도 지난달 자회사인 SK브로드밴드와 케이블TV 업체인 티브로드의 합병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올 상반기까지 본계약을 맺은 뒤 정부 심사를 신청해 연내 모든 절차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합병이 성사되면 SK브로드밴드는 점유율이 14%에서 23%까지 상승한다.

업계에선 전통적 유료방송만을 대상으로 하는 합산규제가 OTT 중심으로 변화하는 미디어 시장의 추세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시각이 우세하다. 과거 일방향이던 미디어는 방송과 시청자가 서로 소통하는 양방향 서비스로 변화했는데 합산규제는 낡은 제도라는 것.

업계 관계자는 “기존 방송시장의 경계도 통신 사업자로 범위가 확장되며 무너지고 있다”면서 “점유율 제한으로 시장을 규제하는 것은 시장 성장을 저해하는 결과를 낼 것”이라고 주장했다.

과거 미국도 유선방송 사업자들의 점유율 상한선을 30%로 규제했다. 그러다 2009년 미국 유선방송 사업자 컴캐스트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에 점유율 상한선을 폐지해 달라며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다. 이를 계기로 미국 유료방송 시장은 초대형 M&A를 성사시키면서 산업이 크게 성장하고 있다. 미국 2위 통신업체 AT&T는 미디어 시장 3위 업체 타임워너를 합병했고 디즈니는 ‘21세기 폭스’를 인수했다. 컴캐스트는 영국 위성방송 스카이를 인수하면서 글로벌 콘텐츠 회사로 발돋움하고 있다.

◇정부 합산규제 유지 반대 입장, 여당

내부서 의견 갈려 진통 예상= 지난 1월 과방위가 법안심사소위에서 합산규제 도입에 대한 업계·학계의 찬성·반대 의견을 수렴한 뒤 KT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위성방송 사업자인 KT스카이라이프의 공공성 강화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KT는 ‘스카이라이프 공공성 강화 방안’을, 과기정통부 역시 ‘위성방송의 공적 책무 강화 방안’을 제출한 상태다.

과방위 소속 의원들은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검토한 뒤 22일 각자의 의견을 낼 예정이다.

하지만 여당 일부에서 합산규제 도입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어 결론을 내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안정상 수석전문위원은 합산규제 및 점유율 규제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안 위원은 “합산규제는 시장 변화와 발전을 제약하는 규제가 아니라 시장의 공정 경쟁과 대기업 및 중소기업 간 상생을 도모하는 장치”라며, “합산규제가 일몰된 현재 IPTV가 케이블TV SO를 인수하게 되면 최대 66%까지 가입자 점유가 가능하다”고 이의 재도입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범근 기자 nova@

스마트공장 전문인력 양성기관 2곳 선정

한국산업단지공단은 중소벤처기업부와 산업현장에 근접한 산학융합지구 내 스마트공장 통합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경남창원산학융합원, 한국산업기술대에 스마트랩을 구축한다고 19일 밝혔다.

스마트랩은 스마트공장의 운영·설계·코딩·컨설팅 등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는 현장실습 교육 인프라다. 주요 공정은 스마트관리시스템, 데이터 분석 모니터링 플랫폼, 원격 제어관리 시스템, 협동로봇, 운영 디바이스, 통신 및 클라우드 서버 등이다.

이번 사업은 지난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제조업 전반의 혁신을 이끌기 위해 발표한 ‘중소기업 스마트 제조혁신 전략’의 일환으로 추진됐다. 교육대상은 산업단지 인근 대학 재학(또는 졸업)생, 입주기업 재직자로 스마트공장에

대한 이론 및 실습 교육이 병행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재학(또는 졸업)생은 스마트공장 구축(또는 희망) 기업에 취업과 재직자는 직무 전환(또는 재배치)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스마트랩 구축 사업은 전담기관인 산단공을 통해 수행기관 선정계획을 공고

창원산학융합원·산업기술대에 ‘스마트랩’ 구축
스마트관리시스템·협동로봇 등 이론·실습교육
연내 900명 전문인력 양성... 255명 취업 목표

했으며, 이날 선정된 2개 수행기관은 사업의 필요성, 수행능력, 수행계획, 사업비 구성 등을 종합 고려해 결정됐다. 특히 창원산학융합원은 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구성해 지능형 기계, 방산, 정밀기계, 메카트로닉스 등 창원국가산단의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과 실증형 스마트랩 구축을 계획하고 있다.

컨소시엄 3개 대학은 경상대, 경남

대, 마산대 등이다. 연내 500명 교육, 그중 120명의 취업목표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재정지원 의지로 가장 우수한 평가를 받았다. 경남도와 창원시는 이번 사업에 지방비 3억 원의 추가 지원을 약속했다.

산기대는 제2캠퍼스에 공고 대비 2배 규모의 전용공간(1000㎡)을 확보해 경기산학융합원과 함께 국내 최대 중소기업 집적지인 반월시화 국가산단에 특화된 실증형 스마트랩 1개소, R&D형 스마트랩 2개소 구축하기로 했다.

또한 연내 400명 교육과 수료생의 산업단지 내 중소기업에 135명 취업 목표가 긍정적 평가를 이끌어 냈다. 앞으로 창원산학융합원과 산기대는 국비 총 50억 원을 지원받아 3월 중 전담기관인 산단공과 사업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4월부터 교과개설 운영, 스마트랩 구축을 본격적으로 시작할 예정이다.

이재훈 기자 yes@



19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에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이 발표하고 있다. 사진제공 중소기업중앙회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 시급”

중기중앙회 토론회 개최... “3월 국회서 법적기반 마련을”

중소기업중앙회(중기중앙회)가 19일 ‘최저임금, 이대로는 안 된다! 토론회’를 열고 3월 국회에서 반드시 ‘최저임금 규모별 구분적용’을 위한 법적 기반을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번 토론회는 급격하게 인상된 최저임금으로 영세 업종 소상공인을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개최됐다.

김기문 중기중앙회장은 “근로자 임금의 최저수준 보장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최저임금제도의 애초 목적이 퇴색되어 버린 지금, 이제라도 제도를 바꿔야 한다”며 “생산성과 지불능력의 차이를 인정해 입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이어 “국민경제 어려움과 고용 문제를 최소화하고 사각지대에 놓인 영세기업의 근로자까지 최저임금 제도권으로 포용하기 위해 구분적용 입법이 시급하다”며 “이번 토론회에서 나온 대안들이 3월 국회 입법에 잘 반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를 맡은 김강식 항공대학교 교수는 “소상공인이 해외 주요국 대비 매우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우리나라 경제구조 특성과 실제 임금수준·미만율의 차이가 큰 점 등을 고려, 구분적용 도입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노민선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10인 미만 영세 소상공인의 노동생산성은 500인 이상 대기업의 7

분의 1 수준”이라며 “영세 소상공인은 부가가치를 올리기 어려운 구조상 인건비를 줄이는 형태로 의사결정을 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라경주 파이더치연구원장은 “작년 저소득층의 가계소득이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도 더 나빠졌다”며 구분적용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희성 강원대학교 교수는 “강행법규성을 가지고 있는 최저임금법을 무리하게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노동 보호 법규의 실효성을 훼손한다”고 지적했다.

김문식한국주요소운영업협동조합이사는 “최저임금 등 고용에서 발생하는 애로 사항으로 겪었던 셀프주유기 수요가 다시 한번 확대됐다”며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을 고려하지 않은 고용 인상의 부작용을 영세기업과 소상공인이 온전히 짊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작년 최저임금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영세 업종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알면서도 규모별 구분의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논의가 진행되지 못했다”며 “구분 여부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심의하더라도 3월 국회에서 입법적인 바탕을 마련해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고광석 소상공인연합회 편집홍보부장은 “대선공약에 포함된 최저임금 1만 원 실현은 영세기업의 지급 능력을 고려해 보완돼야 한다”고 했다. 이시민 기자 aaaa3469@

네이버, 내달 5일 ‘AI 콜로키움’ 개최

인공지능 기술·노하우 공유

네이버는 인공지능 분야 연구자들이 서로의 기술과 노하우를 소개하고 공유하는 ‘네이버 AI 콜로키움 2019’를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내달 5일 그랜드 인터컨티넨탈호텔 파르나스홀에서 진행된다.

이날 현장에서는 김광현 네이버 서치&클로바의 리더가 키노트를 통해 네이버 AI 기술의 현황과 방향성에 대해 소개한다.

또 7개 세션, 22개 발표에서 인공지능 기술 분야 교수들과 네이버의 연구진이 각자 진행 중인 연구를 소개할 예정이다.

특히 신규 네이버 앱에 적용될 AI 검색 기술에 대한 소개와 함께, 현재 네이버에

서 실제로 재직 중인 AI 연구원들과의 자유로운 토의 세션도 마련되어 있다.

이외에도 뛰어난 연구 결과로 해외 우수 학회에서 주목받은 네이버 인공지능 연구원들의 발표도 진행돼 직접 저자에게 관련 내용을 듣고 질문할 수 있다.

네이버 관계자는 “올해로 4회째를 맞이한 ‘네이버 AI 콜로키움’은 네이버의 연구진이 학계와 인공지능 분야 연구 현황을 공유하며 더욱 발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어 가기 위한 목표로 마련한 학술 행사”라며 “해마다 세션 종류와 참석자의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 네이버 AI 개발자들과 국내외 학계 연구진 간의 가장 큰 소통의 자리로 만들겠다”고 말했다.

조성준 기자 tiatio@

컴투스, 개발사 2곳 인수
방치형 RPG 라인업 확대

컴투스는 국내 게임 개발사 ‘마나코어’와 ‘노바팩토리’를 인수하고 경영권을 확보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19일 밝혔다.

마나코어와 노바팩토리는 특별한 조작 없이도 손쉬운 플레이가 가능한 방치형 게임 개발의 노하우와 경쟁력을 갖춘 기업이다.

마나코어는 지난해 방치형 RPG ‘드래곤스카이’를 국내 시장에 출시해 애플 앱스토어 매출 순위 15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였다. 노바팩토리는 다양한 캐릭터와 독특한 콘셉트의 디펜스 2D RPG ‘좀비여고’ 등을 통해 개발 역량을 키워왔다. 양사 모두 앞으로 방치형 RPG 분야에 집중해 다양한 신작 라인업을 갖춰 나갈 계획이다.

조성준 기자 tiatio@

“경쟁제품엔 없는 ‘한끗’ 찾아 소비자 눈·입 사로잡았죠”

유통기 팀픽워

신세계푸드 상품개발팀

“고품질 식재료, 차별화한 맛, 편안한 조리법 등 세 가지 목표 아래 ‘세상에 없던 간편식’을 만들어 국내 가정간편식(HMR) 트렌드를 리드하겠습니다.”(민중식 담당)

1995년 신세계백화점 급식사업부에서 독립법인으로 분사해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베이커리, 외식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며 성장해 온 신세계푸드는 2016년 9월 한식부페 브랜드였던 올반을 통합 식품 브랜드로 확장하고 본격적인 종합식품기업으로서의 도약을 나섰다. 신세계푸드는 ‘올반’에 이어 서양식 가정간편식 ‘베누’, 수산물 가정간편식 ‘보노보노’ 브랜드를 잇따라 론칭하고 300여 종의 제품을 선보이고 있다. 여기에 프랜차이즈, 급식 등에 제공하는 B2B 제품까지 합산하면 지난해 제조 부문 매출은 약 2000억 원에 달한다.

신세계푸드는 식품제조 시장에 뛰어들지 불과 4년도 되지 않은 후발주자다. 그럼에도 높은 성장세와 경쟁력을 보일 수 있었던 것은 종합식품연구소 올반LAB에서 가정간편식 연구개발을 하고 있는 상품개발팀의 힘이 컸다. 국, 탕, 소스 등을 개발하는 HMR파트와 만두, 치킨 등을 연구하는 냉동파트로 구성된 상품개발팀에는 약 20여 명의 연구원이 근무하고 있다.

신세계푸드의 상품개발을 총괄하는 민중식 담당은 “올반 가정간편식을 비롯한 다양한 육가공 상품, 프랜차이즈와 위탁급식 사업장에 공급되는 수백 가지 제품들이 상품개발팀을 거쳐 탄생했다”며 “케어푸드와 신소재 등 미래 식품, 친환경과 발효 등 신규 포장재 연구도 병행하면서 맛과 조리법 등을 넘어 가정간편식 연구개발의 전초기지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니슬비 연구원은 “상품개발팀의 미션은 치열한 경쟁 제품들 사이에서 소비자들의 눈과 입을 사로잡을 수 있는, 한끗 다른 포인트를 찾아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실제 신세계푸드가 에어프라이어의 인기 주목해 개발한 가정간편식 ‘올반 슈



서울 성동구 성수동에 위치한 신세계푸드 종합식품연구소 올반LAB에서 상품개발팀 연구원들이 올반 가정간편식을 소개하고 있다.

후발 식품제조 진출 3년 만에 年매출 2000억 원 규모 성장 에어프라이어용 치킨텐더 등 HMR 개발 트렌드 이끌어



퍼크런치 치킨텐더와 ‘트리플치즈 닭다리 너겟’은 온라인에서 두 달 만에 1만 개나 팔려 나가는 폭발적인 반응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가스레인지, 전자레인지 등에 맞는 가정간편식 개발에 집중해오던 식품업계를 발각 뒤집어 놓았다.

이종민 연구원은 “시중에 판매 중인 냉동 가정간편식은 열기로 조리하는 에어프라이어로 조리할 경우 바삭함이 부족할 수 있어 이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새로운 조리법이나 겉면에 바삭함을 살리기 위한 조리법을 생각해냈다”며 “변화하는 조리 기구 트렌드에 발 빠르게 주목했던 점이 한 발 먼저 상품을 출시할 수 있었던 원동력

이었다”고 설명했다.

냉동만두 시장에서도 신세계푸드는 ‘이색 만두’로 승부수를 띄웠다. 고기만두가 대부분인 국내 냉동만두 시장에 2017년 업계 최초로 짬뽕 육즙을 넣은 올반 짬뽕 군만두를 선보여 출시 3일 만에 10만 개, 지난해 누적 판매량이 200만 개를 넘어섰다. 또한 지난해에는 만두소에 명란을 넣은 ‘올반 명란군만두’를 선보여 이색 제품으로서는 이례적으로 100만 개 판매를 돌파했다.

정현욱 연구원은 “당시 맥주와 군만두의 조합이 인기를 끄는 것에 주목해 소주를 좋아하는 소비자들에게 얼큰하고 매콤한 짬뽕이 들어간 군만두를 선보이면 히트할 것이라 예상했다”고 말했다.

연이은 히트 행진에도 상품개발팀의 고민은 끝이 없다. 조남욱 연구원은 “날이 갈수록 맛에 대한 소비자의 기준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개발자로서 체감한다”며 “가정간편식에서도 유명 맛집 퀄리티를 기대하는 소비자들을 위해 호텔 셰프 출신 연구원들이 대거 모여 있는 매뉴개발팀과도 활발히 협업하고 있다”고 말했다.

상품개발팀에서는 미래 식품으로 주목 받고 있는 케어푸드 개발도 미래연구팀과 협업 중이다. 신기영 연구원은 “고령친화식, 환자식, 다이어트식 등 가정간편식의 타깃층이 갈수록 세분화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응하기 위한 연구도 계속 병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식품업계 주총시즌 관전 포인트

오너家, 사내이사 직함 지킬까

매일유업 김선희, 재선임 전망
삼양식품 전인장·김정수 부부
횡령 혐의로 경영 배제 가능성



김선희 매일유업 대표 이효율 풀무원 대표

식품업계가 주주총회 시즌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오너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눈길을 끈다.

업계 안팎의 좋지 않은 상황을 돌파해 온 매일유업의 경우 너끈히 재선임될 것으로 점쳐지는 반면, 삼양식품은 결원으로 처리될 것으로 논의되는 등 명암이 뚜렷하다.

이달 말부터 시작되는 식품업계 주주총회(이하 주총)에선 사내이사 선임 안건이 관전 포인트다. 29일 열리는 매일유업 주총에서는 김정완 매일홀딩스대표이사회장의 사촌여동생이자 전문경영인인 김선희 대표의 사내이사 재선임 안건을 상정, 무난히 재선임될 것으로 점쳐진다.

대표적으로 분유 수출량이 가장 많은 매일유업의 경우 2017년 40%나 감소했던 수출액이 지난해에는 2016년 수준으로 회복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식품 업계 관계자는 “전반적으로 식음료업계 실적이 부진한 가운데서도 매일유업이 김 대표 중심으로 잘 이끌어 온 점이 높게 평가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매일유업이 풀무원에서 30년 넘게 재직하던 인물을 사외이사로 영입하는 점도 눈길을 모은다. 이번에 매일유업 신규

사외이사로 선임되는 유영기 신안산대학교 초빙교수는 30년간 풀무원에 재직했으며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풀무원 푸드머스 마케팅실장을 담당했다. 풀무원 또한 이효율 풀무원 대표를 사내이사로 재선임하는 안건을 다룬다.

반면 22일로 예정된 삼양식품 주총에서는 오너 일가가 사내이사 직함을 유지하기가 위태롭다. 이사회에서 오너 일가를 제외하는 주주 제안을 받았기 때문에 전망이 어둡다. 앞서 전인장 삼양식품 회장과 부인 김정수 사장은 올 1월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상태다.

사내이사 선임을 통해 실적이 부진했던 부문에 힘을 쓰는 행보도 있다. 28일 열리는 롯데칠성음료는 이번 정기주총을 통해 신동민 롯데그룹 회장을 사내이사로 재선임할 예정이다. 또, 김태환 롯데데이사하주류 대표도 사내이사로 신규 선임될 예정이다. 이에 업계 관계자는 “롯데칠성음료의 이번 재선임을 통해 실적이 부진한 주류 부문에 힘을 실어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쉐이빙 전문 브랜드 ‘프로라스’ 신세계백화점이 1908년에 설립된 이탈리아 남성 쉐이빙(면도) 전문 브랜드 ‘프로라스’를 선보인다고 19일 밝혔다. 프로라스의 대표 상품인 ‘프레 쉐이브 크림(PRE-SHAVE CREAM 2만5000원)’은 면도기로 인한 피부 자극을 최소화할 뿐 아니라 짧은 수염도 곧게 세워 깔끔하고 트러블 없는 면도 크림으로 유명하다. 사진제공 신세계백화점

CJ제일제당 ‘비비고’, 美 PGA대회서 한식 알렸다

‘더 플레이어스...’ 공식 후원 대회기간 컨세션 부스 운영

CJ제일제당은 미국 PGA 대회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The Players Championship)’의 공식 후원 브랜드로 ‘비비고’가 참여해 한식을 알렸다고 19일 밝혔다.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는 14일부터 17일까지(현지시간 기준)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 비치의 TPC 소그래스(Sawgrass The Players Stadium Course)에서 열렸다.

이번 행사는 2월에 열린 ‘제네시스 오픈(Genesis Open)’ 대회에 이어 미국 현지에서 ‘비비고’ 브랜드의 인지도를 높이고, 한식을 알리기 위해 기획됐다. CJ제일제당은 대회 기간 경기장에서 ‘비비고 컨세션(Concession) 부스인 ‘테이스트 비비고(Taste bibigo)’를 운영했다. 부스에서 비비고 제품을 활용한 이색 비빔밥인 ‘비

비콘’, ‘왕교자’, ‘닭강정’, ‘미니치킨완탕’, ‘갈비타코’ 등 스낵 메뉴를 선보여 좋은 반응을 얻었다.

특히 ‘비비콘’을 맛본 갤러리 사이에서 이색적인 콘 모양의 비빔밥 맛에 대해 입소문이나 상당수의 갤러리들이 부스에 오자마자 ‘비비콘’을 주문하기도 했다. 또한 ‘비비고 소스’로 만든 ‘닭강정’과 ‘미니치킨완탕’을 맛본 다수의 갤러리들로부터 ‘비비고 소스’를 어디에서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문의가 쇄도했다.

CJ제일제당은 대회에 앞서 한식을 알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12일에는 PGA 관계자와 현지 매체 대상으로 100인분의 메뉴를 샘플링하고 비비고 브랜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13일에는 김시우, 안병훈 등 CJ소속 골프 선수들과 PGA 선수들이 비비고 부스에서 사인회를 진행하는 이벤트를 진행했다. ‘비비고 김스낵’ 제품 샘플링도 함께 진행해 부스 앞은 갤러리들로 붐비는 모습이었다. 이꽃들 기자 flowerslee@

CJ제일제당은 이번 대회 참가가 전 세계에 ‘비비고’를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됐다고 보고 있다. ‘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대회는 세계 남자골프 ‘제5의 메이저’ 대회로, 상위 랭커 선수들만 출전해 많은 갤러리들이 대회장을 찾았기 때문이다. 이후에도 미국에서 열리는 ‘Tour Championship’ 등 주요 PGA 경기와 제주도에서 개최되는 ‘The CJ Cup’ 등 총 6개의 PGA 대회 일정이 남아 있다.

박은선 CJ제일제당 비비고담당 부장은 “글로벌 전략 국가인 미국 현지에 맞는 제품 개발을 위한 테스트베드로 비비고 부스를 활용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얻은 반응과 평가 등을 바탕으로 마케팅을 강화하고 있다”며 “앞으로 남은 대회에서 현장 반응을 늘려 더 많은 현지인이 ‘비비고’를 접할 수 있도록 만들고 ‘한식 세계화’ 열풍을 이끄는 데 집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원제약 유산균 ‘장대원’ 美 진출

대원제약은 프로바이오틱스 유산균 제품 ‘장대원’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승인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유기농 제품라인인 ‘장대원 네이처 플러스/키즈’ 2종을 포함해 총 4품목을 승인받은 장대원은 미국 내 드러그스토어, 마트, 오가니 전문점 등을 통해 판매 가능하다.

장대원은 특허받은 유산균 로셀균주와 성인인과 아이의 장 환경에 따른 맞춤형 복합균주를 사용했다. 마이크로캡슐공법을 적용해 보다 많은 유산균이 장까지 안전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성인용과 유아용 2종으로 출시돼 남녀노소 누구나 섭취할 수 있고 합성착향료, 합성감미료 등 5가지 화학첨가물도 넣지 않았다. 유혜은 기자 euna@



대원제약 관계자는 “국내 최초 농식품부로부터 유기농 인증을 받은 장대원이 출시 1년 만에 싱가포르, 필리핀, 홍콩 등 아시아 주요 국가 수출에 이어 건강기능식품 최대 시장 미국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했다”며 “건강하고 안전한 유기농 제품의 강점을 어필하여 미국 소비자 구매를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주주 행동주의' 수혜 못 누리는 한진칼·두산

LG·SK·현대중 등 지주사 투자심리 회복에 주가 상승세 한진칼, 지배구조 개선 기대 불구 갈등 커져 변동성 확대 두산은 두산건설 지원 위해 대규모 유증 나서며 주가 급락

'주주 행동주의' 확대 등으로 지주회사에 대한 투자심리가 회복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지주사들의 주가만 소외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19일 금융정보업체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LG, SK, 현대중공업지주, GS, 한화, CJ, LS, 삼성물산 등 주요 지주사 주가는 지난 3개월간(2018년 2월 28일-3월 15일) 평균 6.35%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장 높은 주가 상승률을 기록한 지주사는 LS로 이 기간 16.29% 올랐다. 이어

LG(12.30%), GS(6.01%), SK(5.00%) 삼성물산(4.74%), CJ(4.12%), 한화(1.59%), 현대중공업지주(1.88%) 등의 순으로 오른폭이 컸다.

전문가들은 주가 강세 요인을 주주 행동주의 영향으로 분석한다. 주주 행동주의가 확대될 경우 전반적인 주주환원을 상승효과를 가져오게 되는데 이는 곧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한 지주사의 투자 매력으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오진원 하나금융투자 연구원은 "지주사

지주사 주가 추이

종목명	수정주가(원)		상승률
	2018년 12월 28일	2019년 3월 15일	
LS	49,100	57,100	16.29%
LG	69,900	78,500	12.30%
GS	51,600	54,700	6.01%
SK	260,000	273,000	5.00%
삼성물산	105,500	110,500	4.74%
CJ	121,500	126,500	4.12%
한화	31,350	31,850	1.59%
현대중공업	128,500	129,500	0.78%
한진칼	29,800	26,750	-10.23%
두산	111,500	97,700	-12.38%

※출처: 에프앤가이드

는 주요 계열사 지분을 다수 보유하는 동시에 브랜드 권리를 소유해 그룹의 현금흐름이 최종적으로 수렴한다"며 "이는 지주

사의 현금흐름 체력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어 지주사에 대한 투자전략 변화를 이끄는 마중물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와 함께 주요 자회사의 경쟁력 강화도 지주 상승을 이끄는 요인이다. LG의 경우 구광모 회장 취임 이후의 그룹 전반의 체질 변화 가능성과 LG전자 주가 강세에 따른 영향으로 양호한 주가 흐름을 보이고 있다. SK는 SK바이오팜 등 주요 자회사의 상장 가능성이 부각되며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고 있다.

'승승장구'하고 있는 이들과 달리 한진칼(-10.23%), 두산(-12.38%) 등은 주식 시장에서 전혀 힘을 쓰지 못하고 있다.

한진칼의 경우 주주 행동주의 확대가 오히려 발목을 잡는 모습이다. 당초 한진칼은 주주 행동주의 확대에 따른 최대 수혜주로

주목을 받았다. 행동주의 사모펀드인 KCGI(강성부 펀드)가 한진칼 2대 주주 지위를 획득하면서 지배구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할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이다. 이에 지난해까지만 해도 한진칼의 주가는 상승세를 보였지만 갈등이 심화되면서 오히려 주가 변동성이 확대된 것으로 풀이된다.

두산은 자회사인 두산건설의 부진이 주가 발목을 잡았다. 지난달 두산중공업이 두산건설 지원을 위해 대규모 유상증자에 나서면서 주가는 급락했다.

금융투자업계 한 관계자는 "두산의 지주사 배당상황은 다른 사업사 대비 높은 상황이지만 그 수혜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면서 "약재가 해소되지 않는 한 증시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선영 기자 moon@

라이트론 감사의견 '거절' ... 증권사, 전날까지 "매수"

토러스증권 'NASA가 인정한 국보급 수소기업' 보고서 발간 키움·SK증권도 장밋빛 전망에 리서치센터 신뢰성 도마위

라이트론이 감사의견 거절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인 가운데 토러스투자증권, 키움증권, SK증권 등 3개 증권사 리서치센터가 거래정지 직전 거래일까지 '매수' 내용의 보고서를 발간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 들어 '장밋빛' 전망을 담은 보고서가 집중적으로 게재되면서 리서치센터의 신뢰성마저 도마에 올랐다.

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라이트론은 전날 성원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통보받았고 공시했다. 자금지출 관련 거래 타당성 및 회계처리 적정성 판단이 부적합하다는 이유에서다.

이번 라이트론 사태로 리서치센터 신뢰성에 가장 큰 타격을 입은 건 단연 토러스투자증권이다. 이왕진 연구원은 2월 20일 첫 보고서에서 '글로벌 기업 러브를 폭주 중... NASA가 인정한 국보

급 수소기업'이라는 제목으로 투자자의견 매수, 목표주가 1만7200원을 제시했다. 이어 라이트론과 함께 기관투자자 대상 NDR도 함께 진행한 후 추가 리포트 발간하기도 했다.

증권업계 관계자는 "증권사 입장에서 '투자 유망 회사'라는 인식이 들면 보고서 작성에 이어 기관투자자 대상 NDR까지 진행한다"며 "증권사와 법인 간 우호적 관계를 유지하면, 향후 법인의 메자닌 발행 등을 유치해 수익을 낼 수 있어 경쟁적으로 활용한다"고 귀띔했다.

키움증권도 이날 들어 라이트론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를 작성했다. 김상표, 박재일 키움증권 연구원은 4일 '5G 및 액화수소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주'라는 제목으로 5G 관련 광통신 부품 호조에 대한 내용과 액화수소 매출 전망을 포함했다.

거래정지 직전일인 15일 관련 보고서를 낸 SK증권도 난감한 상황이다. 해당 보고서를 작성한 나승두 연구원은 19일 "중소형 통신장비 부문을 담당하는 입장에서 비중이 크진 않지만, 정리하는 게 맞다는 판단하에 언급하는 정도로 작성했다"며 "당시 꺼림칙한 부분이 있어 예상치 못한 제시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증권업계에서는 정확한 투자정보를 제공해야 하는 리서치센터도 기업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기엔 어려움이 많다고 지적한다.

A사 연구원은 "당시 정부가 수소 경제에 강한 드라이브를 거는 상황에서 라이트론 자회사 메타비스타에 대한 관심이 높았다"고 말한다. 또 "일단 IR행사에서는 검증 자체가 힘들다"고 설명했다. B사 연구원은 "증권사에서 활용하는 회계자료가 이해관계에 따라 다른 경우가 많아 내부 자료까지는 접근하기 힘든 게 사실"이라고 토로했다.

이정희 기자 ljh@

코스닥 혼풍에 벤처펀드도 '방긋'

美·中 무역분쟁 완화 조짐에 外人 제약·바이오 순매수 행진 3개월 평균 수익률 16% ↑

코스닥이 상승 곡선을 이어가면서 코스닥벤처펀드도 기지개를 켜고 있다. 최근 3개월 평균 16%를 웃도는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면서 코스닥시장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지난해부터 글로벌 주식시장을 짓눌러온 미·중 무역분쟁이 완화될 조짐을 보이면서 국내 증시에 혼풍이 불고 있다. 특히 외국인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코스닥지수는 연초 대비 11% 가까이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다. 같은 기간 코스피는 6.46% 올랐다.

김민규 KB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코스피가 1% 수익률로 계절음하는 동안 코스닥은 4% 올랐다"며 "연초 이후 코스닥은 저밸류에이션 종목을 중심으로 유입된 외국인 순매수세가 상승을 주도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코스닥 종목을 담은 코스닥벤처펀드가 흥행을 이어가고 있다. 지난해 4월 첫 출시된 코스닥벤처펀드는 전체 투자금의 절반 이상을 코스닥과 벤처기업에 투자하는 펀드다.

AP워싱, 내추럴엔도텍, 네오팜, 바이오솔루션, 매직마이크로 등 벤처기업으로 선정된 총 391개사와 벤처기업에서 해제된 7년이 지나지 않은 SK바이오랜드, 게임빌, 나무가, 동양파인애플, 삼본정밀전자

코스닥벤처펀드 수익률 추이

펀드명	3개월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C-W	24.45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S	24.38
현대인베스트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A-e	24.37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주식]Ae	20.57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주식]Ce	20.52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주식]A	20.49
KB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2(주식혼합)C-E	17.44
KB코스닥벤처기업특공대증권투자신탁 1(주식혼합)A-E	17.20
KB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2(주식혼합)A	17.41

※출처: 에프앤가이드

등 192개가 투자군으로 포함돼 있다.

에프앤가이드에 따르면 최근 3개월간 코스닥벤처펀드 46개의 평균 수익률은 16.27%에 달한다. 개별 펀드로는 현대인베스트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벤처기업&IPO증권투자신탁 1'이 24%대 높은 수익률을 유지하고 있다. 이어 '삼성코스닥벤처플러스증권투자신탁 1' (20%), 'KB코스닥벤처기업증권투자신탁 2' (17%)도 상위권에 이름을 올렸다.

증권가는 코스닥시장의 호조세와 함께 코스닥벤처펀드의 흥행도 지속될 것이라 긍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특히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권에 포진해 있는 IT(정보통신)와 바이오 기업들이 상승을 견인할 것이라 분석이 많다.

김상표 키움증권 연구원은 "단기 차익 실현 욕구가 커질 수 있는 상황이지만 외국인의 코스닥 순매수 행진은 이어질 전망"이라며 "코스닥 제약 및 바이오 업종에 대한 외국인 매수세가 확대될 경우 상승 탄력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윤기쁨 기자 modest12@

한식부터 냉동피자까지...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 도약

기업탐방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 음성 공장의 샌드위치 라인 모습. 사진제공 신세계푸드

신세계푸드가 5월 준공 예정인 오산 2공장을 통해 '글로벌 종합식품' 기업으로 도약한다.

신세계푸드는 1995년 신세계백화점 급식사업부에서 독립법인으로 분사해 식자재유통, 단체급식, 베이커리, 외식 등 다양한 부문을 아우르며 성장했다. 2015년부터 가정간편식 전용 공장인 음성공장을 준공하고 식품 제조사업에 뛰어들었다.

2016년 9월에는 한식뷔페 '올반'을 신세계푸드의 통합 식품 브랜드로 론칭하고 가정간편식 시장에 뛰어들었다. 2017년에는 서양식·수산물 가정간편식 등을 연달아 선보이면서 종합식품기업으로 체질을 탈바꿈하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제조사업의 성장을 통해 2016년 매출 1조690억 원을 기록하면서 1조 원의 벽을 넘어섰고, 지난해는 매출 1조2637억 원을 기록하는 등 꾸준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신세계푸드는 식품 제조사업을 위해

1995년 신세계 급식사업부서 독립 식자재·유통·외식부문 사업 키워 작년 매출 1.2兆로 성장세 지속

5월 오산 2공장 가동... 경쟁력 강화

519억 원을 투자, 경기도 오산시 원동에 1만8158㎡(5493평), 4층 규모로 오산 2공장을 세우고 5월 본격 가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2공장에서는 냉동피자 전문 생산라인을 구축하고 다양한 냉동피자 제품을 선보일 계획이다.

회사는 현재 이전(식자재 전처리, 연

어), 오산(프레시푸드), 천안(베이커리), 춘천(만두), 음성(가정간편식) 등에 5개 공장을 가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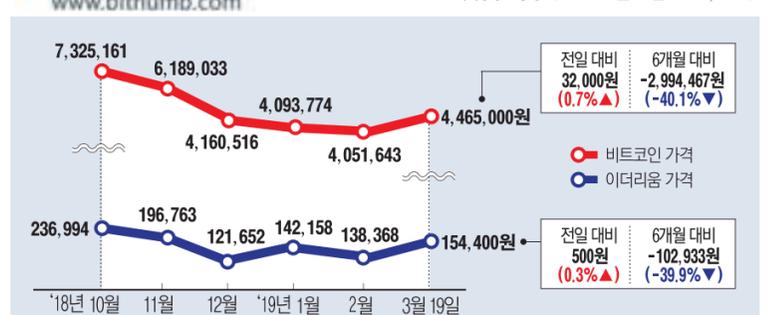
신세계푸드는 냉동피자인 '베누 피자'와 이마트 내 피자 매장인 '슈퍼 프라이 피자' 코너를 별도로 운영하면서 피자 제조에 대한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다. 여기에 2공장의 인프라가 더해지면 더욱 경쟁력 있는 냉동피자를 선보일 수 있을 것으로 회사 측은 기대하고 있다.

시장조사기관 링크아즈텍에 따르면 국내 냉동피자 시장은 2016년 265억 원 수준에서 2017년 894억 원, 지난해 약 1200억 원으로 2년 만에 4.5배 이상 가파른 성장을 보였다.

신세계푸드는 지난해 '베누' 브랜드로 냉동 피자 2종을 출시한 데 이어 올해에는 새로운 냉동피자를 선보이며 오투기와 CJ제일제당이 약 85%를 점유하고 있는 시장에 출사표를 던진다는 포부다. 또 2공장은 냉동피자뿐 아니라 이마트와 트레이더스, 이마트24, 스타벅스 등 신세계그룹 채널에서 판매하는 샌드위치와 케이크 등의 공급 채널 역할도 톡톡히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남호 기자 spdran@



빗썸 지수 (2019년 3월 19일 17:00, KST)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코인명	가격(원)	전일대비 등락(원)
비트코인캐시	177,000	-1,400 (0.8%▼)	모네로	58,100	250 (0.4%▲)
리플	351	-	비트코인골드	14,660	-280 (1.9%▼)
라이트코인	65,950	-300 (0.5%▼)	이더리움 클래식	4,896	10 (0.2%▲)
대시	101,800	-800 (0.8%▼)	퀀텀	2,759	-9 (0.3%▼)

전 세계 1등 가상화폐 거래소

하나금융그룹

하나로 통한다 원큐로 끝낸다



필요한 금융서비스는 다 달라도 스마트폰뱅킹 하나원큐 하나면 충분합니다



하나원큐
설치하러 가기

손님의 기쁨, 그 하나를 위하여
KEB 하나은행

* [예/적금] 이 예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보호하며, 보호한도는 본 은행에 있는 귀하의 모든 예금보호대상 금융상품의 원금과 소정의 이자를 합하여 1인당 최고 5천만 원이며, 5천만 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금액은 보호하지 않습니다.
* [대출] 손님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출한도 및 대출금리가 차등 적용되며, 대출위험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기타 서비스 및 상품 관련 자세한 사항은 KEB하나은행 홈페이지 (www.kebhana.com)를 참조하십시오. 고객센터 (1599-1111) 또는 영업점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본 홍보물은 2019년 6월 30일까지 유효합니다. * 준법감시인 심사필 2019-광고-1785호 (2019.03.12) * CC브랜드 190308-0058

'강북 대어' 갈현1 내달 시공사 선정

4000가구 대단지... 대형건설사 눈치싸움 치열

강북권 최대 재개발 사업지로 꼽히는 은평구 갈현제1구역의 시공사 선정 작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4000여 가구가 넘는 대단지인 만큼 대형 건설사들의 눈치싸움이 벌써 치열하다.

19일갈현제1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이하 조합)에 따르면 해당 사업지는 1월 31일 은평구청으로부터 사업시행인가를 받았다. 조합은 이르면 다음 달 중순에 시공사 입찰을 실행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지는 아파트 32개동(분양 29개·임대 3개동, 지하 6층~지상 22층), 총 4116가구(분양 3496가구, 임대 620가구)가 들어서는 대단지다. 특히 분양 물량에는 전용면적 114(44가구)·124(121가구)·149㎡(11가구) 등 대형 물량이 공급돼 눈길을 끈다.

사업지는 2016년 11월 공공건축가의 자문을 받아 건축계획을 수립해 공동주택 우수디자인 건축심의를 서울시 건축위원회에 신청했고, 2017년 9월에 심의를 통과

(조건부 가결)한 곳이다.

당시 서울시는 "기존의 정비구역 계획안을 공공건축가 자문시 배치 및 영역, 커뮤니티시설 계획 등의 문제점 분석을 통해 위치별 영역성을 고려한 길의 흔적과 지형에 순응하는 기존 도시의 기억을 보존하는 마을 만들기로 특색 있는 단지계획을 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4000가구가 넘는 사업지다 보니 대형 건설사들은 일찌감치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현대·대우·GS·롯데·SK·HDC현산 등 6개 건설사가 물밑 작업에 들어간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건설사들의 관심은 시공사 선정 방식에 쏠린다. 사업 규모가 큰 만큼 특정 건설사가 단독입찰에 성공하면 나머지 건설사들은 쓴맛을 봐야 한다. 그러나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수익은 적을지라도 소정의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A건설사 관계자는 "컨소시엄을 구성하면 건설사들이 골고루 일감을 나눠 갖는

것이고, 단독입찰로 간다면 경쟁이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조합 관계자는 "조합원마다 선호하는 게 다르기 때문에 선부르게 얘기할 수 있는 내용이 아니다"라며 "대의원회의에서 결정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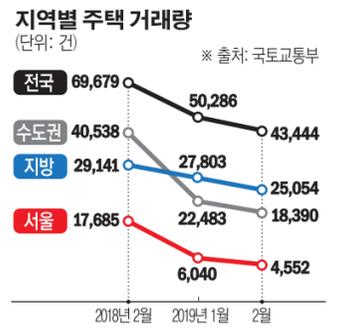
이밖에 갈현제1구역은 감정평가업자를 통해 재산 또는 권리를 평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재개발사업은 시장·군수 등이 선정 및 계약한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금액을 산술평균해 산정해야 한다.

올해 전국의 공동주택 공사가격(안) 변동률이 5.32%, 그 중에 서울이 14.17%로 책정된 만큼 공사가격 인상 추이도 따져봐야 하는 상황이다.

조합 관계자는 "올해 1월에 사업승인이 났기 때문에 이번 공동주택 공사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감정평가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며 "여러모로 검토해야 할 부분"이라고 말했다. 서지희 기자 jhsseo@

2월 주택매매 '역대 최저'... 수도권 반토막

전국 거래량 4만3000건
 지난해보다 37.7% 감소
 전월세 전년 대비 14% 늘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큰 폭으로 줄었다. 반면 전월세 거래량은 늘었다.

국토교통부는 올해 2월 전국 주택 매매 거래량은 4만3444건으로 전년 동월 6만9679건 대비 37.7% 줄었고 5년 평균(7만100건) 대비 38.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올해 1~2월 누계 주택 매매 거래량은 9만3730건으로 전년 동기 14만3333건 대비 33.1% 감소, 5년 평균(13만6050건) 대비 31.1%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2월 수도권 거래량(1만8390건)은 전년 동월 대비 54.6%로 크게 줄었고 지방도 2만5054건으로 14.0% 감소했다.

올해 2월까지 수도권 거래량(4만873건)은 전년 동기 대비 47.5% 줄었으며 지방(5만2857건)은 15.0%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성현 기자 carlove@

유형별로 보면 2월 아파트 거래량은 2만8293건으로 전년 동월 대비 42.7% 줄었고 연립·다세대(8692건)는 28.2%, 단독·다가구주택(6459건)은 21.2% 각각 줄었다.

반면 2월 전월세 거래량은 18만7140건으로, 전년 동월(16만4237건) 대비 13.9% 증가, 전월(16만8781건) 대비 10.9% 증가했으며 1~2월 누계 전월세 거래량은 35만6000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3.4% 늘었다.

2월 전월세 거래량 중 월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41.3%로, 전년 동월(40.4%) 대비 0.9%p 늘었고 전월(39.3%) 대비 2.0%p 증가했다.

지방 혁신도시 아파트, 2년 만에 분양 재개

검증된 입지... 프리미엄 높아
 인근 부동산 시장 기대감 커져

지역경제와 부동산시장을 이끌던 혁신도시 내 아파트와 오피스텔이 2년 만에 공급된다. 해당 지역 실수요자들을 비롯해 인근 부동산 시장의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19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주도하에 체계적으로 개발된 혁신도시는 '검증된 입지'라는 평가를 받으면서 청약은 물론 인근 지역 인구 유입도 활발한 것으로 나타났다.

혁신도시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계기로 지역 성장 거점이 되는 곳이다. 이전한

공공기관과 지역 연구소 및 대학, 산업체, 지방단체가 협력해 최적의 혁신 여건과 더불어 주거 및 교육, 문화 등을 갖춘 자족도시로 개발돼 왔다.

때문에 부동산 시장에서도 좋은 지표를 기록하고 있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2017년 6월 진주혁신도시에서 분양된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센트럴시티'는 1순위 청약 결과 884가구(특별공급 제외) 모집에 2만7158명이 몰려 평균 30.72대 1을 기록하며 전 가구 마감됐다. 이어 공급된 '진주혁신도시 중흥S-클래스더퍼스트'는 1순위서 평균 134.82대 1의 우수한 성적을 거뒀다.

프리미엄도 높다. 국토부 실거래가 자료를 살펴보면 광주·전남혁신도시에 이어진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 대방엘리움 2차(2018년 5월)' 전용면적 84㎡는 1월 4억200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2억6150만 원보다 1억6000만 원 가까이 올랐다.

또한 대구혁신도시에 공급된 '대구혁신도시 서한이다음 3차(2016년 8월 입주)' 전용면적 78㎡ 역시 1월 3억5000만 원에 거래돼 분양가 2억5840만 원보다 1억 원 가량 웃돈이 붙었다.

인구 유입도 가팔랐다. 국토교통부가 혁신도시 정주여건 현황을 분석한 결과 혁신도시 거주민은 지난해 말 1만2000명으로 2017년 말 대비 1만8262명 증가했다. 특히 9세 이하의 인구는 18.5%로 전국 평균(8.3%)보다 두 배 이상 높은 수준이다. 구성현 기자 carlove@

대림산업, 연산 5000톤 '대림시놀' 공장 투자

대림산업이 독자 기술로 만든 윤활유 첨가제인 대림시놀(DaelimSynolTM)을 생산하기 위해 신규 공장 건설 투자에 나선다고 19일 밝혔다.

시놀(Synol)은 합성유(Synthetic Oil)의 줄임말이다. 대림시놀은 대림이 만든 고부가가치 윤활유 첨가제의 의미를 담고 있는 브랜드명이다. 대림은 총 400억 원을 투자해 연간 5000톤 규모의 윤활유 첨가제를 생산할 예정이다. 여수 국가산업단지 내에 건설되며, 올해 하반기 준공 예정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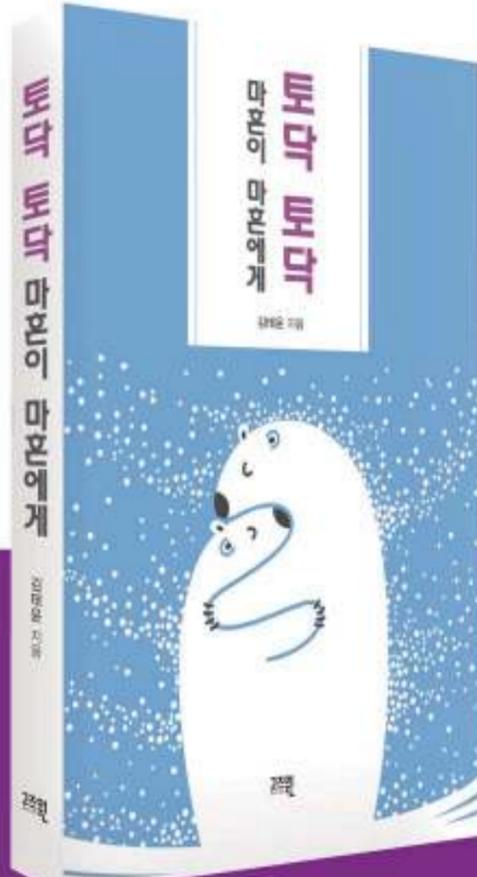
대림시놀은 자동차와 각종 산업용 기계 설비에 사용되는 윤활유의 점도 조절과 품질 향상을 위한 필수 첨가제다.

윤활유 첨가제 시장은 친환경 정책과 기계설비의 고성능화 요구에 따라 연평균 4.3%의 성장이 전망된다. 대림산업은 자체 연구개발을 통해 공정 및 촉매 기술을 자립화했고 미국, 중국, 러시아 등 다수의 국가에서 특허권을 확보했다. 이 기술력을 바탕으로 5년간의 연구개발 끝에 2017년 대림시놀 독자 개발에 성공했다.

대림은 이번 투자를 통해 미국, 유럽, 아시아 등 글로벌 윤활유 첨가제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신철 기자 camus16@

40대, 힘들고 지친 일상 속에서 하루하루 버티는 우리를 위하여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세상은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 우리들에게 파괴적 혁신을 강요한다. 지금 변하지 않으면 죽을 수도 있다고 위협하며 가뜩이나 힘든 40대 중년들의 어깨를 더 움츠려 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변화를 부르짖을 때 세상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아야 할 가치들이 있다고 말하고 싶다. 그 건 바로 나 자신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가족과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을 놓치지 않는 것이다. 이 두 가지만 지켜도 우리의 인생은 한결 따뜻하고 행복해질 것이다.

토닥 토닥 마흔이 마흔에게 | 2,800원 | 252쪽

고즈윈 | 서울시 마포구 양화로7길 84 4층 전화 02-325-5676 팩스 02-333-5980



〈버닝썬·김학의·장자연〉

대통령 한마디에 화들짝... “버·학·연 철저 수사”

김부겸 행안·박상기 법무장관 긴급 기자회견 “무거운 책임감... 진실규명 최선”

정부가 '버닝썬 사태'와 '김학의·장자연 사건' 진실규명에 조직의 명운을 걸라는 문 대통령의 지시가 있는 지 하루 만에 철저한 수사를 약속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예정과 달리 검찰과거사위원회 활동기간을 네 번째 연장하며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리스트 사건의 검찰 재수사 가능성을 시사했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버닝썬 사태 이후 처음으로 경찰 유착 의혹에 대해 사과했다.

박 장관, 김 장관은 19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과거사위 활동, 버닝썬 수사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국민의 공분에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진실 규명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장관은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장자연 리스트 사건에 대해 범죄 사실이 드러나면 검찰 수사로 전환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효과적 재수사가 될 수 있도록, 다시 말해 사실관계를 규명하지 못하고 과거사가 되는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박 장관은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원

회의 네 번째 활동연장 건의도 받아들였다. 앞서 검찰과거사위는 18일 조사실무를 맡은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접대 의혹 사건, 고(故) 장자연 씨 사건, 용산 참사 사건 조사를 위해 활동기간을 2개월 연장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법무부에 건의했다.

박 장관은 “검찰과거사위 추가 활동기간 조사를 통해 (김학의·장자연 사건의) 진상 규명 작업을 계속 진행할 것”이라며 “1월에 재배당된 용산지역 철거 사건에 대해서도 연장된 기간 동안 필요한 조사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 장관은 “불법행위를 근절해야 할 일부 경찰관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진 데 대해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 숙였다. 이어 “범죄와 불법 자체를 즐기고 이것을 자랑삼아 조장하는 특권층의 반사회적 퇴폐 문화를 반드시 근절하겠다”며 “발본색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찰관의 유착 관련 비위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엄벌에 처할 것”이라며 “대형 클럽 주변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전국의 지방경찰청을 일제히 투입해 단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장효진 기자 js62@



서울광장 봄 단장

포근한 봄 날씨를 보인 19일 서울 중구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관계자들이 잔디를 심고 있다. 뉴시스

‘2호선 지하화’ 하루 만에 백지화

박원순 시장 “생활 단절 공감하지만 당장 추진 어렵다”

서울시가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 지하화 사업에 대해 “추진이 어렵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19일 “박원순 서울시장의 15일 광진구, 성동구, 송파구청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인 취지는 지하철 지상 구간으로 인해 발생하는 생활권 단절 등 어려움에 공감한다는 의미”라며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 추진시기를 특정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현재 2호선 지하화 사업은 경제성, 재원 문제로 당장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라며 “향후 서울시는 이를 정책 연구과제로 삼아 검토하는 등 방안 모색을 위해 자치구와 협력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날 광진구는 김선갑 광진구청장, 정원오 성동구청장, 박성수 송파구청장이 박원순 시장을 방문해 지하철 2호선 지하화 사업의 필요성과 구체적인 추진 방안을 논의했다고 언급했다. 지하철 2호선

지상 구간이 도심 한 중심축을 가로지르면 도시 발전을 저해하고 주민 공간을 단절해 공공성·지역 형평성 차원에서 어긋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원순 시장은 “서울시 핵심 정책 연구과제로 착수해 다각적 방안을 검토할 것”이라고 답한 바 있다.

정원오 성동구청장은 18일 “면담에서 원론적인 얘기가 오갔다”며 “해당 사업을 제안했고 박원순 시장은 ‘해결방안에 대해서는 동의하지만 서울시내 많은 사업이 있고 우선 순위가 있는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하철 2호선은 한양대~잠실 9.02km, 신도림~신림 5.82km, 영등포~합정 3.50km 등 총 21.91km 구간이 지상에서 운영되고 있다. 2호선 지하화 사업 비용으로 광진구와 서울시는 각각 2조 원, 3조 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김진희 기자 jh6945@

‘횡령’ 이석기 징역 8개월

내란 선동 징역 9년에 형량 추가

자신이 운영하던 선거홍보 업체의 자금을 횡령하는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석기(사진·57) 전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실형이 확정됐다. 이 씨가 2015년 1월 대법원에서 내란 선동 사건으로 징역 9년을 확정 받고 수감 중인 만큼 형량이 추가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욱 대법관)는 사기,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8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씨는 선거홍보회사 CNP전략그룹을 운영하던 2010~2011년 지방의원선거, 도지사선거 등에서 각종 홍보 업무를 수행하며 물품 가격을 부풀리는 방법으로 선거보전비용 4억여 원을 타낸 혐의(사기·정치자금법 위반)를 받았다.

더불어 CNP의 법인자금 1억9000여만 원을 유용해 개인 명의로 여의도 빌딩을 사들인 뒤 임대 수익을 올리거나 CNP 명의의 4000만 원을 빼돌려 쓴 혐의(횡령)를 받았다. 장효진 기자 js62@

시니어 품격을 위한 공감 매거진 <월간 브라보 마이 라이프>

시니어 공감 매거진

BRAVO

Monthly Magazine

My Life

2019. 03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의를 차려입다

귀족

먹고 입고 잘 수 있으면 끝 더 이상 무슨 필요?

살이 찌거나 건 살고 싶은 대로 살 때다. 그러나 살고 싶은 대로 살기 쉽지 않다. 살고 싶은 살이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그냥 대충 살기 십상이다. 이럴 때 살이란 위대한 곡예에 가깝다. 곡예 역시 진땀을 흘려야 한다는 점에서 진실일 수 있다. 하지만 이왕지사 한 번 태어난 인생, 심란한 곡예보다는 평온한 활보로 삶을 즐기는 게 낫겠다. 이 사람을 보라. 살고 싶은 대로 산다. 남들이 어떻게 살건, 뭐라 하건 상관없다. 내 방식대로, 내 지향대로 산다.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의를 차려입다

Elegance

COVERSTORY 심플하고 스타일리시하게 에의를 차려입다

PART1. 철학이 있는 패션 - 시니어 시크의 시대

PART2. 체형을 알고 패션을 선택하면, 스타일 백전백승

PART3. 프로그래머가 알려주는 옷장 정리 꿀팁

PART4. 내가 바로 시니어 패션 리더 - 시니어 모델 소은영, 핫한 모델 김철두

PART5. 패션 핫 아이템 '항수' - 스타일의 완성, 항수를 입다

PART6. 해외 시니어숍 콜라 - 시니어를 사로잡을 세계의 패션 브랜드

PART7. 동년기자들의 패션 단상

월레이징 투석 시작하면 폐가망신은 옛말 "만성콩팥병에 절망 마세요"

때론 유명인사의 죽음이 사인이 된 질환에 대한 선입견을 만들어내는 경우가 있다. 최근 재조명되고 있는 프레디 머큐리의 에이즈나 스티브 잡스가 걸린 췌장암이 대표적이다. 중장년들은 신부전증으로 유명을 달러한 가수 베히올 떠올린다. 비만 병환비 때문에 힘들어했다는 사인이 전해지면서 이 병은 집 기동부리 뽑아 병원을 대야 할 만큼 치료가 비싸다는 인식을 심어왔다. 하지만 예외는 혈액투석과는 거리가 있다. 그는 1966년 사망했는데, 국내에 인공신장기가 처음 도입된 시기는 1965년 수도권병원에서였다. 일반인이 쉽게 혈액투석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다. 전문의들 또한 이런 선입견에 반기를 든다. 신장병은 치료비 부담이 크지 않고, 삶의 질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다.

타박타박 도보여행 근대건축물의 보고, '인천해항누리길'을 걷다

전철 1호선을 타고 종착역인 인천역으로 간다. 전철 안에서 시간여행자가 되는 상상을 한다. 인천역 앞에 있는 화려한 퍼무를 통과하면, 100년대의 일인전 경향 사물의 풍경이 펼쳐지는 상상 말이다. 실제로 해동 나대에 근대건축물이 많이 남아 있다.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당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발상

올해의 새사람을 보라누리와 봄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애회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탐라국 왕자님께

신라비가 만난 사랑

생의 밤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다 다르다

소통과 공감을 위해 다시 청춘을 노래하다

질풍 7인 예술가들의 미학이 같은 예술은 전라 작가 진공재

정창현, 송시현, 이범하

평기로 태운 인생을 말하다

머니테크 집주인도,세입자도 난감한 '역전세난' 대처법

서울 송파구의 전당 88㎡의 아파트를 보유한 K 씨는 요즘 매일 전세 시세를 확인하며 가슴을 졸이고 있다. 2년 전 여름 8억3000만 원에 현재 세입자와 전세계약을 맺었는데, 최근 전세 시세가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시니어 발상

올해의 새사람을 보라누리와 봄나물로 차린 향긋한 제철 한 상

부치지 못한 편지

장애회 전 이집트대사관 대사 탐라국 왕자님께

국내 첫 ICO 진행 보스코인, 추가 자금 모집 이유는

경영 분쟁에 '블록체인OS' 운영 난항

〈보스코인 개발 진행 업체〉

김우람의 가상화폐 스토리텔링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가상화폐공개(ICO)를 했던 걸로 알려진 '보스코인(Boscoin)'이 운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시작 당시 내세웠던 플랫폼 기능도 포기하고, 참여자들이 스스로 펀딩 방향을 정하는 '퍼블릭 파이낸싱'으로 전환 이후 또 경영 분쟁을 맞이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자들의 고민은 깊어져 갈 것으로 보입니다.

◇투자자에 추가 자금 요구 = 보스코인의 개발을 진행해온 블록체인OS는 12일 홈페이지에 "보스코인 지원을 위한 모금을 진행한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일반적으로 ICO 프로젝트는 초기에 자금을 투자자에게 펀딩받는 구조인데, 왜 또다시 모금을 하는 것일까요.

블록체인OS에 따르면 이 회사는 지금 보스코인 재단과 운영 분쟁을 겪고 있습니다.

우선 보스코인 운영 구조에 대해서 알아보죠. 우리나라에서 ICO가 금지돼 있기 때문에 보스코인은 스위스에 모금과 자금관리 재단을 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개발자들은 내국인 중심으로 운영되기 때문에 블록체인OS라는 법인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었죠. ICO를 했던 보스코인재단이 개발을 블록체인OS에 의뢰하는 식이에요.

재단이 블록체인OS에 개발 자금 지급을 거부한 것이 원인이라고 합니다.

블록체인OS는 대표와 이사진이 보유한 보스코인 1000만 보스(BOS)를 담보로 묶어두고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리플(XRP) 등 4가지 가상화폐의 모금을 진행한다고 하네요. 모금된 자금은 늦어도 두 달 후 상환하기로 하고, 월 5%를 추가 보상한다고 해요.

◇신뢰도 추락... 믿을 수 있나 = 업계 관계자들은 투자자들에게 이번 자금 모집을 신중히 하라고 조언하고 있습니다. 자금을 모집한다고 해서 재단과의 갈등이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



자금 모집 수단	비트코인(BTC), 이더리움(ETH), 이오스(EOS), 리플(XRP)
총대여금	1000만 BOS의 현재 가격에 해당하는 규모
상환	보상률: 5%/월
대여 기간	최소 1개월 ~ 최대 2개월

* 출처: 블록체인OS

최예준 블록체인OS 대표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 무산되고 펀딩 방향도 '퍼블릭 파이낸싱' 전환 스위스 재단, 개발 자금 지급 거부 'ERC-20' 하드포크 맨 사실상 '독립'

국내선 'ICO 전면금지'로 위법 업체 "투자자 펀딩 참여 신중해야"

이죠. 블록체인OS는 보스코인 재단이 보스코인을 이더리움 표준토큰(ERC-20)으로 하드포크하기 위해 준비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OS가 자체 메인넷을 운영 중인 상황에서 하드포크가 이뤄지면, 둘 사이의 연결고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블록체인OS가 재단의 자금 지원 없이 자생해야 한다는 말인데요. 이에 따른 위험이 있다는 것이죠.

물론 블록체인OS에선 프로젝트를 계속 추진할 뜻을 밝히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보스코인은 이미 경영권을 놓고 내부 분쟁이 계속해서 이어져 왔습니다.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나올지도 예측하기 힘든 게 사실이죠. 특히 한국형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출발했지만, 원래의 계획은 무산

된 지 오래됐습니다. 내부 갈등과 경영난, 프로젝트 방향 전환이 있었던 프로젝트에 투자는 신중할 수밖에 없죠.

◇펀딩, 법적 문제는 없나 = 더 큰 문제는 블록체인OS가 추가 자금을 펀딩하는 것이 법적 위반의 소지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나라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 자금을 모집하는 것이 금지돼 있습니다. 원화(KRW)로 받게 되면 유사수신 행위의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블록체인OS는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하고 있는데요. ICO가 전면금지됐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부의 방침을 위반할 수 있는 것입니다. 법률 전문가들도 비슷한 조언을 하고 있어요.

한 변호사는 "정부가 ICO를 금지하는 방침이 있기 때문에 코인으로 자금을 모집한다고 해도 이를 위반할 소지가 커 보인다"며 "금융당국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전방위적으로 기업을 압박해 사업 자체가 힘들어질 수 있다"고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11월 가상화폐 거래소 지닉스는 가상화폐 펀딩을 추진했다가 금융당국이 집합투자(펀드) 성격을 띠고 있다고 지적했죠. 관련 법인 자본시장법을 따르지 않아 위법하다는 압박에 결국 폐업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운영 자금을 마련하는 추가 펀딩을 성공한다고 해도 국내에서의 사업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시장 이모저모

미국 금융당국이 비트코인 ETF의 승인 여부가 투자자 보호에 달려 있다는 뜻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는 10년 후 블록체인이 경제 체계를 바꿀 것이라고 자신했다.



SEC 위원장 "투자자 보호가 ETF 승인 열쇠"

제이 클레이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ETF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 부분을 가장 우려한다고 발언했다. 클레이튼 위원장은 시장 조작 가능성과 투자자 보호를 걱정할 뿐 가상화폐(암호화폐)에 대해 중립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SEC 위원장은 ETF 승인을 위해 "거래가 조작되지 않고 적절한 규칙이 세워진 신뢰할 만한 곳에서 거래가 이뤄지며 안심할 수 있는 자산 운용 방식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블록체인, 10~20년 후 세계 경제 원동력"

이더리움의 공동 설립자이자 블록체인 스타트업 '컨센시스'의 창업자인 조셉 루빈이 블록체인의 파생 및 확장 가능성을 언급하며 10~20년 후 세계 경제 내 블록체인이 일으킬 수 있는 성장 가능성을 언급했다.

미국 텍사스 주 오스틴에서 열린 북미 최대 IT·엔터테인먼트 페스티벌인 SXSW 콘퍼런스에서 블록체인이 지닌 가능성을 초창기 이메일과 빗대어 설명했다.

그는 "오늘날 많은 이가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는 것은 1983년 많은 사람들이 이메일을 보내지 않았던 것과 같은 현상"이라고 평가했다.

'스위스 투자 전설' 마크 파버, 비트코인 매입

스위스의 전설적인 투자자로 알려진 마크 파버가 비트코인을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외 언론에 따르면 파버는 지난주 독일 언론(Cash)과의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을 처음 구입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매입 규모는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인터뷰에서 "비트코인이 200달러였을 때 구입 유혹을 받았지만 내가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것을 사지 말아야 한다고 생각해 자제했다"고 밝혔다.

파버는 또 비트코인 가격이 2017년 말 2만 달러 가까이 올랐을 때와 비교해 지금이 "더 좋아 보인다"고 말했다.

김우람 기자 hura@

랜섬웨어 정보센터 www.hauri.co.kr

알려지지 않은 최신 랜섬웨어



바이로봇 Anti-Ransomware

보안취약점을 통해 유입되는 랜섬웨어



바이로봇 APT Shield 2.0

이미 알려진 랜섬웨어 동작 시



바이로봇 7.0

당신의 소중한 파일을 노리는
랜섬웨어

하우리, 바이로봇으로 차단하세요!

수년간 축적된 소중한 데이터를 한 순간에 암호화 시켜버리는 랜섬웨어. 대한민국 대표백신, 바이로봇 솔루션으로 랜섬웨어를 차단하고 소중한 데이터를 지키세요.

(주) 하우리 | 서울시 종로구 을지로 238 (여말린동) 6층 | 대표전화 02-3676-1100 



100년 전 신념이 100년 후 대한민국에게

100년 전, 민족의 현실을 바꾸고자 싸웠던
백범 김구 선생과 독립운동가들의 신념은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 아니었을까요?
대한민국 임시정부 100주년, 그 정신을 기억하며
KB금융그룹도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을 위해 작은 힘을 보태겠습니다

세상을 바꾸는 금융, KB금융그룹



국민이 지킨 역사
국민이 이끌 나라

KB금융그룹은 3.1 만세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아
국민의 행복을 위해 세상을 바꿨던 그들의 정신을 기억하고 이어가겠습니다



 KB금융그룹

“재벌 저격수? ... 공정한 산업 생태계 만들자는 것”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기자 시절 중진공 등 출입 “일주일에 한 번은 구로공단 찾아” ‘상생과 공존’ 모토로... 대기업 → 중소벤처 중심 대전환 필요

“기자 시절 중소기업청 전신인 중소기업진흥공단을 출입했다. 또 구로공단을 일주일에 한 번은 방문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려 노력했다.”

박영선(사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는 19일 이투데이와의 인터뷰에서 언론인 시절부터 쌓아온 중소벤처기업과의 인연을 이렇게 소개했다. 박 후보자는 MBC 기자 출신으로 MBC 선배인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의 제의로 2004년 17대 국회에 비례대표 의원으로 정계에 입문했다.

박 후보자는 “현직 기자 시절 중소기업계를 오랜 기간 출입했다. 초대 중기중앙회장 임명을 지켜봤고, 중소기업 협동조합 유통도 담당했다. 당시 대한민국 수출의 중심지는 구로공단이었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취재차 방문했었다”며 “중소기업 진흥공단을 출입할 당시에는 아파트형공장(현 지식산업센터) 보급을 위해 집중 취재했던 기억이 난다. 대한상공회의소 출입 기자이기도 해 누구보다 경제·산업계 관련 현안에 대해서는 눈으로 확인하고 발로 뛰었다”고 말했다.

박 후보자는 중기부의 모토로 ‘상생과 공존’을 제시했다. 그는 “선진국 정착을 위해선 대기업 중심에서 중소벤처기업 중심 경제로의 대전환이 요구된다”면서 “상생 협력을 통해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양극화가 개선되고 혁신벤처 창업가가 4차 산업을 주도해 새로운 시장을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중소기업의 생산성을 개선하면 제조업 강국이 될 수 있다”면서 “창업벤처 기



업가 그리고 서민 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버팀목이 되겠다”고 다짐했다. 그는 “장관이 된다면 언제든지 현장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박 후보자는 경제민주화를 위해 재벌개혁과 사회적 약자 보호법을 다수 발의해

‘재벌 저격수’로 통한다. 그는 “대기업으로의 지나친 경제력 집중을 막고, 공정한 산업 생태계를 조성함과 동시에 전통시장 등 사회적 약자를 합리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경제 구조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4차 산업 시대의 변화에 대비한 인프라 구축이 시급하다고 힘줘 말했다. 특히 스마트시티로의 전환에 필수적인 제로페이(모바일직불결제)의 대중화 의지를 피력했다. 박 후보자는 “제로페이가 맹점을 금년 중 최소 50만 개로 확대하고 사용자가 다양한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소득공제 40%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는 “알파고 같은 로봇은 단순 기계가 아니라 인간과 교감하는 등 감정적 동반자의 역할을 하며 사회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면서 “또 수소에너지는 기후 변화 문제를 대비한 친환경 에너지로 잠재력을 평가받고 있어 일자리 창출 등 거대한 시장을 창출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하늬 기자 honey@

도레이첨단소재 내달 출범 합병사 초대 CEO에 전해상 대표 선임

도레이첨단소재가 다음달 1일 출범하게 될 합병회사의 초대 CEO(최고경영자)에 전해상 대표이사를 임명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레이첨단소재의 CEO 교체는 20년만의 일로, 전 사장은 2017년 대표이사 사장 COO(최고운영책임자)로 승진한 지 2년 만에 도레이첨단소재와 도레이케미칼의 합병회사인 도레이첨단소재의 CEO를 맡게 됐다. 양 사의 대표이사 회장이었던 이영관 회장은 도레이첨단소재의 회장 겸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된다.

변효선 기자 hsbun@

성광의료재단 차움 원장에 윤상욱

성광의료재단은 파워에이징 라이프센터 차움의 제6대 원장으로 윤상욱 교수를 선임했다고 19일 밝혔다.



신임 윤상욱 차움 원장은 1992년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졸업했다. 이후 2002년 차의과학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로 부임한 이래 분당차병원 영상의학과 과장, 차움건강센터 삼성병원 원장, 차움 엑스블레이드 글로벌센터 소장, 의료원 기획조정실장 등 차병원 내 다양한 현장에서 주요 보직을 두루 거쳤다.

노은희 기자 selly215@



한화큐셀 북중미사업부의 박진홍 마케팅팀장·영업총괄 김성훈 상무, LA다저스의 류현진 선수·스탠 카스텐 CEO·론 로젠 마케팅총괄책임(왼쪽부터)이 후원 계약 후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한화큐셀, 류현진의 LA다저스와 태양광 분야 공식 파트너 계약

한화큐셀이 미국 메이저리그(MLB) 명문 구단 LA다저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했다. LA다저스의 태양광 분야 공식 파트너로 활동하는 한화큐셀은 글로벌 브랜드 인지도가 제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화큐셀은 12일 LA다저스와 후원 계약을 체결하며 포수 후면 광고, 외야 펜스 광고, LED 전광판 광고 등 다양한 경기장 내 광고 권한을 확보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계약에 따라 한화큐셀은 경기 시구 및 경기 전 인사, 전용 VIP 관람석 사용 등 각종 추가 권한을 확보했다. 한화큐셀은 미국 주택용 태양광 시장의 전략적 요충지인 캘리포니아에서 연평균 약 420만 명이 LA다저스 홈경기장을 방문한다는 점, LA 다저스 팬들 중 약 63%가 구단 후원사 제품에 대해 구매 의향이 높다는 점에서 LA다저스 후원을 결정했다.

김유진 기자 eugene@

기아차 조지아 공장 찾은 조윤제·해리스 대사

美 주요도시 돌며 한미동맹 부각...SUV 텔루라이드도 시승

조윤제 주미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조지아주 기아자동차 공장을 방문했다.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는 이날 함께 기아차 공장을 둘러보고 기아차가 내놓은 대형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텔루라이드도 시승도 했다.

조 대사는 페이스북에 “기아차로 인해 조지아의 죽어가던 동네가 살아났다고 한다”면서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한국을 가난하고 위험한 나라로 알았던 현지 주민들이 이제는 태극기가 휘날리는 한국 기업에서 일하는 것을 매우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한다”고 방문 소감을 전했다. 해리스 대사는 트위터에 “기아차 공장에서 10년간 11억 달러의 투자와 미국인 약 3000명에 대한 고용, 거의 3만 대의 차량 생산이 이뤄졌다고 한다”며 조 대사와 찍은 ‘셀카’를 올렸다.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가 셀카를 찍은 사진은 조 대사의 페이스북에도 올라왔다. 한미동맹을 강조하기 위한 차원에서 마련된 일정인 만큼 친분을 과시하는 모습이다.

조 대사와 해리스 대사의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 방문은 23일까지 진행되는 ‘대사와의 대화’ 행사 일환으로 이뤄졌다. 이들



조윤제(왼쪽) 주미대사와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가 미국 조지아주 기아차 공장 로비에서 셀카를 찍고 있다. 조윤제 주미대사 페이스북

은 텍사스주 오스틴과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콜로라도주 덴버를 돌며 공개 간담회 등의 행사에 참석할 예정이다. 이들은 일요일인 전날 조지아주 애틀랜타에 도착해 호수에서 낚시를 하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다. 연합뉴스

이번엔 불륜설... 또 성추문 휩싸인 할리우드

쓰지하라 워너브러더스 CEO, 여배우에 “배역 따주겠다” 제안

영화 제작자 하비 와인스타인의 성추문으로 홍역을 치른 할리우드가 또 성추문에 휩싸였다.

미국 최대 영화제작사 워너브러더스의 케빈 쓰지하라(사진) 최고경영자(CEO)가 권력 남용 및 여배우와의 불륜 의혹 여파로 사임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1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워너브러더스의 지주회사 워너미디어의 존 스탠키 CEO는 이날 “케빈이 지금 자리에서 물러나는 게 워너미디어와 워너브러

더스, 모든 임직원 및 협력사를 위해 도움이 된다고 결정했다”며 쓰지하라의 사임을 발표했다.

일본계 미국인인 쓰지하라 CEO는 워너브러더스에서 25년간 몸담으며 영화와 TV 제작을 담당했다. 최근에는 ‘아쿠아맨’ ‘원더우먼’ 등을 성공시켰다.

FT는 그의 사임이 회사 경영에도 적잖은 영향을 줄 것이라고 전했다. 워너미디어는 거대 통신업체인 AT&T가 타임워너를 작년엔 합병한 후 사명을 워너미디어로



변경하면서 탄생했다. 그리고 불과 2주 전, AT&T는 구조조정에 나서면서 쓰지하라에 힘을 실어줬다.

그러나 쓰지하라가 여배우 살롱 커크와 바람을 피우고, 커크가 배역을 따내는 데 도움을 줬다는 미국 연예전문지의 보도로 상황은 달라졌다.

실제로 커크는 쓰지하라 덕분에 워너브러더스 영화 ‘오션스8’과 ‘하우 투 비 싱글’ 두 편에 출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커크는 전면 부인하고 있다. 김영정 기자 0jung2@

SK하이닉스·재단법인 숲과나무

청주에 공익 산업보건센터 설립

재단법인 숲과나무는 19일 청주시 흥덕구 S타워에 ‘일환경건강센터’를 개소했다고 밝혔다. <사진>

일환경건강센터는 SK하이닉스와 함께 반도체 산업 협력업체의 안전·보건·환경 문제를 해결하고, 지역사회의 일터를 보다 안전하고 건강하게 만들기 위해 설립되는 민간 공익 산업보건센터다. 특히 민간 기업이 협력사와 지역사회 영세사업장을 지원하기 위해 센터를 세우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숲과나무는 SK하이닉스가 지난해 5월 350억 원을 출연해 설립한 공익재단이다.

송영록 기자 syr@

인사

◆행정안전부 ◇국장급 전보 △OECD 대한민국정책센터 공공관리정책본부장이 한경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위원장 최기주 △상임위원 백승근 ◇과장급 전보 △건축안전팀장 홍성준 △대중교통과장 김동준 △철도투자개발과장 나진환 △혁신도시발전추진단 혁신도시정책총괄과장 이상일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정책과장 손덕환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교통요금과장 장구중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광역시설운영과장 이우재

◆방송통신위원회 ◇실장급 전보 △사

무처장 김재영

◆도레이첨단소재 <승진> ◇부사장 △대표이사 CTO 임희석 △경영지원본부장 송백하 ◇전무 △엔지니어링본부장 유현범 △TPN 총경리 겸 TPF 총경리 장욱 ◇상무 △재경담당 남병탁 △심사팀장 권용식 △보전담당 김덕순 △구미인사담당 임동섭 ◇이사 △Chip 판매팀장 김태환 △복합재료판매팀장 정돈호 △SB생산담당 이광교 △필터판매2팀장 노영남 △필름소재연구센터장 정인식 △광학재료판매팀장 남현국 △ACM 기술센터장 강창원 △섬유생산기술담당 오구치 아사히로 <전배> △SB사업본부장 박서진 전무 △원면사업부장 문수정 상무 △아라위사업부장 추낙준 상무 △섬유사업본부장 김덕용 상무 △복합재료사

업본부장 서창호 상무 △기술기획실장 이민복 상무 △필터사업본부장 김강진 상무 △SB마케팅팀장 채상균 상무 △필터생산담당 김병호 상무 △경영기획관리실장 초라쿠 요시히로 상무 △섬유마케팅팀장 안상봉 이사 △TIS 대표이사 양원진 △TAK 마이크로필터 대표이사 김정은

◆이주경제신문 △산업부장(부국장) 임재천 △경제부장 배근득 △아주닷컴 편집장(부장) 한준호 △금융부장 전운은

◆글로벌경제신문 △편집국장 겸 이사 류원근 △광고마케팅국장 박범주 △경영지원국장 조동환

◆시사오늘 △정책산업에디터 김기범

◆조선뉴스프레스 △월간·주간조선 광고팀장 김용환

‘위대한 개츠비 곡선’ 크루거 프린스턴대 교수 별세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을 통해 경제적 불평등을 비판했던 앨런 크루거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가 사망했다. 향년 58세.



프린스턴대학은 크루거 교수가 17일(현지시간) 사망했다고 18일 밝혔다. 가족들이 발표한 성명에 따르면 그는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통신은 그가 16일 아침 자택에서 경찰에 의해 발견됐으며, 이후 사망 선고를 받았다고 보도했다.

크루거 교수는 버락 오바마 전 미국 대통

령 행정부 출범 초기 재무부에서 차관보를 지냈으며, 2011년부터 2013년까지 백악관 경제자문위원회(CEA) 위원장으로 일했다. 빌 클린턴 정부 시절에는 노동부에서 수석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기도 했다.

2012년 CEA 위원장이던 크루거 교수는 ‘대통령의 경제보고서’에서 ‘위대한 개츠비 곡선’ 개념을 소개했다.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나 부자가 된 청년 개츠비를 주인공으로 한 소설 ‘위대한 개츠비’에서 연유한 ‘위대한 개츠비 곡선’은 소득 불평등이 커질수록 세대 간 계층 이동성이 작아진다는 것을 보여주는 곡선이다.

홍석동 기자 hong@

조석의 遠見明察

(원건명찰)



경희대 국제대학원 교수
前 지식경제부 차관

답은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생각을 배척해서 안 된다는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받아들일 때 발전 가능해진다.

어느 날 고마운 요청으로 '원건명찰(遠見明察)'이라는 이름을 달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족한 글을 쓸 수 있는 선물을 받게 되었다. 비록 좋은 글을 쓰기에는 턱없이 모자라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정리하고 솔직하게 쓰려고 노력했다. 그럼에도 완성된 글을 볼 때마다 부족함에 몸 둘 바 없었기 때문이다. 지난 2년간을 뒤돌아보면 일관되게 몇 가지 얘기를 하고자 했던 것으로 보인다.

우선은 답은 중간 어디쯤에 있다고 말하고 싶었다. 자기 생각과 다르다는 이유로 상대의 생각을 배척해서 안 된다는 믿음이 시간이 지날수록 분명하게 다가왔다. 우리가 살아가는 공동체는 서로 다른 생각을 서로가 조금씩 양보하면서 받아들일 때 발전 가능해진다. 자기 자신의 정체성이라고 생각했던 가치관마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변해 간다는 사실 앞에서 겸손해질 필요가 있다.

둘이 단련되어 금강이 되듯이 인간은 대화와 소통으로 연단되고 풍성해진다. 나와 다른 모든 것에 대한 관용과 이해를 더 키

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우리 모두의 미래를 위해서!

두 번째 화두는 공동체의 발전을 위한 희생적 헌신과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야 한다는 것이었다. 개인의 역량과 그러한 역량을 갖기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사회 시스템은 발전하기가 어렵다. 문제가 생기면 풀고자 하는 노력을 해야 하고, 그러한 노력을 존중하는 사회가 돼야 한다. 비록 그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과정에서 완벽한 성공을 이루지 못하거나, 생각하지 못했던 문제가 생길 수 있지만, 사후의 비판이 두려워 모두가 직무를 유기하고 적당히 눈치를 살피는 사회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과도한 징벌과 신랄한 비판이 많은 사회는 공동체 구성원을 소극적으로 움츠러들게 하고 모두가 문제 해결을 회피하는 사회가 되게 한다. 노력과 역량이 평가받고 성과에 대해서 관대한 사회를 만들어서 적당히 남들을 따라 하거나 중간만 가던 된다는 생각이 지배하는 사회가 되는 것을 경계하는 마음이었다.

'산티아고 가는 길' 800km를 걸으면서 끊임없이 생각했던 '이어가기'는 세 번째 주제였다. 길은 이어지고 길과 길 사이에는 문(門)이 있었다. 문을 넘어가면 새로운 세상이 열린다. 문(門)을 넘으려는 노력은 비상한 각오가 있어야 하지만 그 문 앞까지 오기 위해서는 한 걸음씩 걸어 내야만 한다. 그렇게 문을 넘어서면 새로운 길이 나온다. 그렇게 길과 문(門)은 이어져 있었다.

배우고 반성하고 극복해야 하는 것이 역사이지만, 모질고 험악한 역사 속에서도 생명은 이어지고 있다. 그 생명에 대한 사랑이 휴머니즘이며 휴머니즘을 통해 사회 통합을 이루어 내는 것이 더 큰 미래를 바라보는 안목과 리더십이다.

이런 맥락에서 직접 일했고 지금도 공부를 게을리하지 않고 있는 에너지 얘기를 조금씩 풀어 놓았다. 실사구시(實事求是)적으로 접근해야 할 에너지 문제가 가치를 동반한 문제로 다루어지는 것이 안타까워서 모든 에너지원은 우리가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대상일 뿐'이라는 생각을

말했다. 무역의존도가 100%에 가까운 우리로서는 전 세계가 합의한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이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을 강조했다. 에너지는 국민이 부족함이 없이 쓸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경제적으로 감내할 수 있는 가격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이제 새로운 에너지 전환의 시대에는 환경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 가치가 되었다. 그리고 국제사회는 환경의 최우선 순위를 온실가스 감축을 통한 기후변화 대응이라고 합의하였다. 우리는 그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책무를 다해야 한다. 온실가스 감축 약속을 지키는 것이 에너지 정책의 기본 목표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 대한민국의 시대 정신이다.

이제 몸과 마음을 좀 더 충전해야 할 때가 되었다. 지금까지 부족한 글을 읽어주신 모든 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언젠가 다시 글을 쓰게 될 기회를 가질 수 있다면, 지금보다 더 풍성한 이야기로 돌아올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정책발언대



신명호
공정거래위원회 경쟁정책국장

시장에서는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이뤄져야 한다. 이는 시장 활력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원칙이다.

그러나 기업들은 종종 서로 담합해 가격을 인상하거나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해 소비자에게 피해를 끼친다. 공정거래법은 이러한 행위들을 방지하고 경쟁의 규칙을 확립하기 위해 1980년 12월 31일 제정됐다.

약 38년이 지난 지금, 우리의 경제 환경은 크게 변화했다. 1980년대 고도성장 가도를 달리던 우리 경제는 최근 저성장-양극화를 겪고 있다. 이에 따라 재벌개혁과 갑질근절 등 공정경제에 대한 요구는 한층 높아졌으며, 4차 산업혁명 등 기존 법체계에 대응하기 어려운 경제현상도 새롭게 나타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와 같이 변화된 21세기 경제여건을 반영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의 규칙을 재정립하기 위해 공정거래법

시장경쟁 규칙 가다듬을 공정거래법 개편

전면개편을 추진해오고 있다. 앞서 전면개편 특별위원회, 각종 토론회·간담회 등의 견수렴 과정을 거쳐 공정거래법 전부 개정안을 마련했으며, 지난해 12월 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우선 개정안은 행정·민사·형사적 수단 간의 상호 보완과 균형을 이루는 법집행 체계를 마련해 법 위반 억지력을 높이고자 했다. 이를 위해 불필요한 형벌규정은 삭제하는 대신, 민사적 구제수단은 확충하고 과징금 부과율 등 행정제재 수준을 보다 강화했다.

대표적으로 피해자가 법원에 직접 불공정행위의 금지나 예방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사인의 금지청구제가 도입되면 피해 구제가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가격담합, 입찰담합 등 경쟁담합에 대해 전속고발제가 폐지되면 막대한 소비자 피해나 국가 재정 낭비를 초래하는 담합에 보다 효과적인 형사제재가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기업집단과 관련해서는 기업집단 규율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데 주안점을 뒀다.

먼저 사익편취 규제 적용대상을 확대해 소액주주의 부가 불합리하게 총수일가로 이전되는 행태를 방지하고, 중소기업에 공정한 사업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금융·보험사와 공익법인이 가진 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을 제한해 고객자금 등이 편법적 지배력 확대에 활용되는 것을 방지토록 했다.

개정안에는 벤처기업 인수·합병(M&A) 저변이 실질적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벤처주회사의 설립기준과 행위제한 규제를 완화하는 등 혁신성장 생태계 구축을 뒷받침하는 내용도 담겼다.

여기에 자산총액·매출액을 기준으로 한 현행 기업결합 신고기준을 거래금액 기준으로 보완했다. 작지만 성장 가능성이 큰 스타트업에 고액에 인수해 잠재적 경쟁자를 제거하거나, 진입장벽을 형성하는 등

경쟁을 제한할 우려에 적극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최근 경쟁사업자 간에 가격, 생산량 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해 은밀하게 담합이 이뤄지는 사례가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이러한 형태의 담합을 제재할 수 있는 규정도 개정안에 담았다.

마지막으로, 공정위 법집행의 신뢰성을 높이기 위해 조사 및 심의절차를 개선했으며 피심인이 열람·복사할 수 있는 자료의 범위를 넓히는 등 기업의 방어권 보장도 확대했다. 이와 함께 현장조사 시 조사공문 교부를 의무화하고 심의단계부터는 현장조사를 금지하는 등 조사 공무원이 준수해야 할 법적 의무를 강화함으로써 공정위 결정의 절차적 정당성을 높였다.

공정위는 향후 국회에서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공정거래법이 개정된다면 시장 경쟁을 든든하게 지탱해주는 버팀목이 되어 줄 것이다.

이투데이, 말투데이

☆ 니콜라이 고골 명언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도 웃음은 무서워한다."

러시아의 작가·극작가. 사실주의 문학창시자로서 누구도 모방할 수 없는 사실주의적 묘사 기법과 풍자적 문체로 도스토옙스키를 포함한 후대 작가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미쳤다. '아리베스크', '감찰관', '외투', 그의 문학적 역량이 집결된 대작 '죽은 혼'을 남겼다. 오늘이 그의 생일. 1809-1852.

☆ 고사성어 / 소리장도(笑裏藏刀)
웃음 속에 칼을 감추고 있다는 뜻. 고대 중국 병법 삼십육계 중 10번째 계책. 방법에서는 상대방으로 하여금 자신을 믿게 하여 안심시킨 뒤에 허를 찌러 공격하는 계책. '삼국지연의'에서 육구에 주둔한 오나라의 여몽(呂蒙)은 관우가 마음을 놓도록 하기 위해 병이 든 것처럼 속여 물러갔고, 무명의 육손(陸遜)이 그를 대신하였다. 관우는 노련한 여몽은 경계했지만 젊고 무명인 육손은 애송이다 여기고, 형주 병력의 태반을 거두어 번성을 공격하는 데 투입했고 여몽은 형주의 병력이 취약한 틈을 타 함락시켰다.

☆ 시사상식 / 펀 경영(fun management)
F(fun·신나게) U(unique·독특하게) N(nurturing·보살피라)의 줄임말로, 웃음경영을 이르는 말. 기업들이 직원들에게 유머 훈련을 받게 해 직장 분위기를 밝게 만들자는 아이디어에서 출발한 경영기법이다.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면 자발적인 참여와 헌신을 이끌어낼 수 있고 생산성도 높아진다는 것이다.

☆ 고운 우리말 / 오토카니
작은 사람이 낮이 나간 듯이 가만히 한 자리에서 있거나 앉아 있는 모양.

☆ 유머 / 조연
시골 할머니가 수의사에게 소가 어떤 편 잘 견고 어느 편 절뚝거리냐고 하자 의사의 대답. "제대로 걸을 때 팔아버리세요." 채집/정리:조성권 국민대 경영대학원 객원교수, 맛있는삶연구소장

기자수첩



정용욱 금융부/dragon@

보험사기, '공유지의 비극'은 현재진행형

난 건 더 많이 잡았기 때문이에요." 한 보험사기 조사관의 토로다.

실제로 보험사기 범죄자는 해마다 줄어들지만, 적발금액은 꺾일 줄 모른다. 소수의 전문 사기집단이 보험이란 공유지를 갇아먹는다는 뜻이다. 민간 보험연구단체는 보험사기 규모를 연 5조 원으로 추산했다.

조사관은 최대 10조 원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10조 원에는 광의의 보험사기도 포함된다. 작은 접촉사고에도 무조건 입원해 진료비를 타내는 행위, 불필요한 한방치료를 받고 실손보험금을 받는 행위도 작은 사기행위다.

공유지의 비극을 기억해야 한다. 보험이란 인공 초원을 유지하는 건 우리가 낸 보험료다. 목초지나 어장처럼 자연 공유지는 사라질 수 있지만, 보험은 보험료 인상으로 계속 유지된다. 매년 오르는 보험료의 이면에는 보험사기범의 큰 범죄와 평범한 개인의 작은 일탈이 섞여 있는 셈이다.

공유지의 비극을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이용자의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서로 자율적으로 감시하고 규제하는 방법뿐이다. 국가의 강제성이나 시장의 자율성은 공유지의 비극을 막지 못한다. 더 늦기 전에 우리나라 보험시장의 황폐화를 막아야 한다. 지금도 보험사기는 현재진행형이다.

3500만 명. 우리나라 실손보험 가입자 수다. 사실상 경제활동을 하는 국민 누구나 실손보험 하나쯤은 갖고 있을 것이다. 국가는 국민의 모든 사회보장을 책임질 수 없다. 민간 보험은 이 지점에서 출발했고, 성장했다. 민간보험은 현대 사회의 공유지인 셈이다.

보험이란 공유지가 시들고 있다. 보험사기 때문이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해마다 최고치를 경신한다. 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상반기 적발한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4000억 원이라고 밝혔다. 2016년과 2017년 상반기 적발금액은 각각 3500억 원과 3700억 원 수준이었다.

"보험사기는 늘 그 자리에 비슷한 규모로 있었습니다.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늘어

4차 산업혁명·제2 벤처 붐 일어나려면

제2 벤처 붐이 일어날까.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의 경제교사로 불리는 청와대 경제보좌관으로 18일 주형철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선임했다. 정보통신기술(ICT)·벤처 전문가를 발탁한 것은 이례적이다. 경제교사 자리인 만큼 경제학자나 관료, 정치인 등이 주로 발탁돼온 자리다. 문 대통령이 경제부진 타개책으로 강조해 왔던 혁신성장과 제2 벤처 붐 조성의 의지가 읽히는 대목이다.

최근 개각에서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후보자로 조동호 카이스트 교수와 중소기업벤처부장관 내정자로 박영선 의원을 앉혔다. 4차 산업혁명과 중소·벤처 기업 육성에 힘을 싣겠다는 의지를 나타낸 것이다.

이번 인사 자체가 혁신, 파격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소·벤처기업 등 산업계에 선 환영하는 눈치다. 하지만 경제계에서는 경제 문외한에게 경제를 맡겼다는 비판적 시각이 있다. 특정 분야에 전문성은 있지만 전체 경제를 아우르기엔 전혀 검증이 안 됐다는 것이다. 지금의 경제 상황에서 모험하기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성공한다면 '대박'이지만, 실패하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이라는 장기 침체의 전철을 밟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 대통령이 강조한 것처럼 경제회복을 위해선 제2 벤처 붐이나 4차 산업 혁신이 꼭 필요하다. 문제는 출범 100일을 맞은 2기 경제팀의 평가가 그리 좋지 않다는 것이다. 경제사령탑인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관리형 경제수장으로선 적임자라는 평가다. 하지만 현 경제 상황을 극복하기엔 주도권을 쥐

데스크칼럼

신동민

정치경제부 정치팀장



지 못하고 여당이나 청와대에 끌려간다는 얘기가 많다.

'왕실장'으로 불리는 김수현 청와대 정책실장은 부동산·도시정책통이지만, 경제 문외한이라는 지적도 있다. 두 경제수장은 소통에서는 긍정적 평가이지만, 현 경제 상황을 주도적으로 이끌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세간의 공통적인 지적이다. 윤종원 청와대 경제수석은 그림자로 있어야 하는 조국 민정수석보다 오히려 더 그림자라는 평가다.

현 경제 상황에 대해 최근 방한한 국제통화기금(IMF) 연례회의단은 한국 경제가 투자·고용 부진, 양극화 심화로 '역풍'을 맞고 있다며 대규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는 진단을 내렸다. 문 대통령으로선 뼈아픈 소리이지만, 한편으로 추경을 통한 재정정책 확장에 힘을 실어준 처방전이었다는 분석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문 대통령은 이번 인사에서 혁신을 선택하며 승부수를 띄웠다. 조 과기부 장관 후보자는 전기·통신 분야 전문가로서 5G(5세대) 이동통신과 무선 충전 전기 자동차 사업 상용화의 적임자로 꼽힌다. 주 신임 보좌관은 SK텔레콤에서 티맵, 멜론, 네이트온 등 여러 IT 혁신 프로젝트 개발에 참여했고 SK커

뮤니케이션즈 대표를 맡아 싸이월드를 주도한 IT 분야 전문가다. 특히 한국벤처투자 대표를 맡아 벤처기업 생태계 조성에 큰 그림을 그리면서 박원순 서울시장의 두터운 신임을 받은 인물이다. 박 중기부장관 후보자는 4선 의원으로 중소·벤처기업의 지원과 규제 법안을 국회에서 풀 힘이 있다. 문 대통령이 이들 전문가를 전면 배치한 점도 혁신성장과 제2 벤처 붐을 일으켜 달라는 주문이다.

지난해 카이스트에서 조 후보자의 강의를 들은 적이 있다. 조 교수는 무선 충전 전기자동차 관련 강의를 하면서 정부 지원의 문제나 규제에 대해 쓴소리를 많이 했었다. 세계 최고의 기술을 정부가 외면하고 있고 각종 규제로 상용화가 더디게 진행되는 점에 아쉬움을 많이 나타냈다. 당시 강의에서 조 후보자는 정부의 적극 지원과 규제에 대해선 작은 정부로 나아가야 기술 혁신이 이를 수 있다는 얘기도 했었다.

조 교수의 지적처럼 중·벤처의 적극적 지원과 과감한 규제개혁 없이는 세계 최고 기술을 개발하더라도 상용화에서 다른 선진국에 뺄기 수밖에 없다. 문 대통령이 전문가에게 벤처와 4차 산업혁명을 맡긴 만큼 이들이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모든 권한을 쥐어 준다. 문 대통령이 '도 아니면 모'의 모험을 선택한 만큼 출범 100일을 맞은 2기 경제팀 수장에게 계속 맡길지도 중간 점검이 필요하다. 위기에 맞는 경제정책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는 세간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야 한다. 그만큼 경제가 위중하다.

lawsdm@

사설

역전세난 확산 경고하고 나선 한국은행

집값과 전셋값이 지속적으로 하락하면서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는 역(逆)전세난이 심화할 것이라는 한국은행의 경고가 나왔다. 한은이 19일 발표한 '최근 전세시장 상황 및 영향 점검'이라는 보고서를 통해서다. 한은은 앞으로 전셋값이 10% 떨어질 경우, 전체 211만 임대가구(집주인) 가운데 1.5%인 3만2000가구가 예·적금 해지나 추가 대출로도 자금이 부족해 전세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것으로 분석했다.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할 때는 이 비중이 14.8%까지 올라갈 것으로 파악했다.

올 들어 1~2월 거래된 아파트 중 전셋값이 이전 계약 시점인 2년 전보다 내린 곳은 52%나 됐다. 2017년 20.7%, 작년 39.2%에서 급증한 수치다. 하락률은 14.9%가 10~20%, 7.1%가 20~30%, 4.7%는 30% 이상이었다. 전셋값이 10% 이상 떨어진 곳이 절반을 넘는다. 이런 추세라면 어느 때보다 역전세난의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는 것이다.

특히 지방의 역전세난에 대한 우려가 크다. 지방의 전셋값이 낮아진 아파트 비중은 2017년 35.8%, 작년 50.8%, 올해 1~2월 60.3%로 급격히 늘었다. 보증금 규모가 작은 아파트의 하락폭이 더 컸다. 서울은 전셋값이 떨어진 곳이 2017년 10%에서 지난해 16.7%, 올해 1~2월 28.1%로 증가했다.

한은은 전셋값 하락에 따른 금융시

스템의 리스크는 크지 않을 것으로 진단했다. 집주인들이 대체로 고소득자이고 실물자산이 많아 재무상태가 양호하다는 점에 서다. 임차인들의 전세자금 대출건전성도 아직은 나쁘지 않은 편이다. 그러나 전세 가격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 지역이나 부채가 많은 임대주택은 금융 및 보증기관의 신용 위험이 증대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역전세난이 확산할 경우 결국 임차인인 무주택 서민들의 피해가 커진다는 점에서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세입자들은 전세보증금이 자신의 대부분인 경우가 많다. 이를 온전히 돌려받지 못하면 피해를 고스란히 떠맡고 주거가 불안해질 수밖에 없다.

게다가 집값이 많이 내린 일부 지방에서는 매매 가격이 전셋값보다싼 곳도 속출하고 있다. 집을 팔아도 전세보증금을 모두 반환하기 힘든 '강통주택'이 늘어나고 있는 것이다.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2월 이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한 바 있다.

집값과 전셋값 하락이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줄인다는 점에서 바람직하지만, 역전세난이나 강통주택의 부작용은 부동산시장 자체를 왜곡하고 민생의 어려움만 가중할 가능성이 높다. 역전세난이 사회문제로 번지기 전에 세입자들이 안심하고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시장이 정상화할 수 있는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

장효진의 이슈通



사회경제부 차장

버닝썬·김학의 사건, 정치적 섹범 버려라

을 밝힌 바 있다. 경찰은 전방위적인 수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들 사건이 더욱 관심을 받는 이유는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에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의 이해관계가 꼬리표처럼 붙어 다니기 때문이다.

다시 버닝썬 사태만 놓고 보자. 단순 폭행으로 끝날 뻔했던 일이 승리·정준영 스캔들에서 경찰 유착까지 대형 권력형 비리 의혹 사건인 '게이트'로 변했다.

버닝썬 사태는 경찰과의 유착 의혹에 일부 실체를 드러냈다. 경찰청 핵심 간부가 연예인 사업에 뒤를 보냈다는 의혹이 줄줄이 터져나왔다. 경찰은 승리 카톡 대화방에서 '경찰총장'으로 거론된 윤모 총경 등 3명을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입건했다.

윤 총경은 2017년 7월부터 2018년 7월까지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파견 근무를 했다. 이후 경찰청으로 복귀해 핵심 요직인 인사담당관으로 근무해왔다. 그가 조직 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인물이라는 점은 경찰 입장에서 아킬레스건이 될 수 있다. 핵심 요직 인사의 유착 정황이 드러

나자 검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부정적인 여론에 경찰은 쓴 침을 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반면 최근 민갑룡 경찰청장이 국회에서 "성적대 의혹 영상에서 김 전 차관의 얼굴을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는 발언은 검찰 쪽으로 유리하게 흘러갔던 분위기를 다시 원점으로 되돌렸다. 김 전 차관 사건은 경찰이 특수간첩 등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송치했지만 검찰이 불기소했다. 장자연 사건 역시 제대로 수사하지 않았던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다.

버닝썬 사건과 김학의·장자연 사건은 수사권 조정 필요성을 주장하는 양측의 각기 다른 근거가 될 가능성이 크다. 이미 일부 부정직권은 수사권 조정 논의의 홍보전에 이 사건들을 활용하고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를 부각하는 지렛대가 됐다.

격정스러운 점은 사건의 본질을 파헤치기보다 정치적 섹범이 우선되는 것이다. 적당한 타협은 안 될 말이다. 특권층의 범죄 의혹일수록 더욱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 무관용 원칙, 성역 없는 수사가 정답이다. js62@



오밀조밀 奧密稠密, 아기자기 雅氣紫氣?

3월 초 사립유치원들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발표를 하면서 며칠 동안 우리 사회는 적잖이 긴장했었다. 다행히도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측이 개학을 연기하겠다는 방침을 철회함으로써 일단 평온을 되찾았다. 그러나 아직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고 한다. 하루빨리 근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다시는 이러한 혼란이 생기지 않기를 바란다.

출근길에 노랑 병아리 색 유치원 차에 타는 어린이들을 보자면 미소가 절로 지어지고, 그야말로 병아리 떼가 연상되면서 '오밀조밀', '아기자기' 등과 같은 말들이 떠오른다. 어린이들을 환한 웃음으로 맞아 오밀조밀하게 돌봄으로써 아기자기 한 분위기 속에서 마음 놓고 하루를 지낼 수 있게 한다면 그게 바로 진정한 복지 사회의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어린이를 잘 돌보지 못하여 어린이가 상처를 받고 불편을 겪는다면 그런 사회야말로 가장 불행한 사회일 것이다.

오밀조밀은 '奧密稠密'이라고 쓰며 각

글자는 '깊을 오(奧)', '빽빽할 밀(密)' '빽빽할 조(稠)'라고 훈독한다. 세 글자 다 깊고, 그윽하고, 섬세하고, 자세하고, 꼼꼼하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 아이들을 오밀조밀하게 돌본다는 것은 바로 깊은 애정을 가지고 섬세하게 돌본다는 뜻인 것이다. '아기자기'는 사전에 한자말이 아닌 것으로 풀이되어 있다. 그러나 나는 '아기자기'라는 말의 어원이 혹 '雅氣慈氣'에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본다. '말을 아(雅)', '기운 기(氣)', '사랑할 자(慈)'를 쓰면 '맑고 자애로운 분위기' 즉 오늘날 사용하는 '아기자기'라는 말이 가진 '여러 가지가 오밀조밀 어울려 예쁜 모양 혹은 분위기'라는 의미를 담을 수 있겠기에 한 번 해본 생각이다.

봄빛이 짙어지고 있다. 짙어지는 봄처럼 아이들도 성장한다. 성장하는 어린이들이 奧密稠密한 돌봄 속에서 날마다 雅氣慈氣한 생활을 할 수 있기를 축원한다. 어른으로 인해 어린이가 다치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 김병기 전북대 중문과 교수

이투데이

아침에 만나는 이투데이 경제가 더 가까워집니다

온라인 뉴스 서비스는 www.etoday.co.kr

사람이 기업이다 기업은행이 동반자다



복잡한 금융거래 한큐에 IBK 큐브

앱설치 NO! 공인인증서 NO!



지금 찍고,
IBK큐브 만나기

*큐브는 빠른(Quick)과 지점(Branch)의 합성어로 빠르게 고객과 만날 수 있는 모바일 비대면 웹 서비스입니다

쉽고 빠르게, 금융거래 한큐에 끝내기



웹에서 큐!

문자링크 클릭, 검색만으로 다양한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지금 만나보세요



한번에 큐!

콤보세트로 여러가지 상품을 한번에 쉽고 간편하게 만나보세요



혜택이 큐!

카카오페이 / 티몬 / 페이스북에서 추가 금리, 적립금, 할인쿠폰 등의 혜택을 받아보세요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 2019-1239호(2019.03.14) 게시기한: 2020.03.12 · 개별 상품에 관한 자세한 문익는 거래영업점 또는 IBK고객센터(☎1566-2566)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은행거래와 관련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IBK기업은행 분쟁처리기구에 해결을 요구하거나 금융분쟁조정위원회 등을 통하여 분쟁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금융감독원 : 국번없이 ☎1332, IBK기업은행 : ☎080-800-0119) IBK기업은행은 금품·향응을 받지 않습니다. 윤리경영 위반 사실이나 개선이 필요한 경우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02-729-7490, e-mail : ibkethics@ibk.co.kr)

